朝鮮日報 夕刊

墺國政情不安 依然히繼續

護國團員의一部 「슈」公逐出陰謀

警官隊、護國團兵舍襲擊 交戰後黨員多數逮捕

【維也納二十八日發聯合】 二十八日午後維也納郊外의프로스돌프에서護國團（하임벨）의兵舍를突然警官隊가 襲擊하야 一時間交戰한 後多數의黨員을 逮捕하고 撤去하엿다 右檢擧는護國團의一部에秘密히總司令슈타렘버公의 逐出陰謀를劃策한事實이發覺되기때문으로警官隊를鐵甲着劍으로武裝을굿게하고 貨物自働車로兵舍를襲擊하얏든바叛徒一黨은不意에周章狼狽하야 銃劍과棍棒피스톨等으로抵抗하엿스나드듸여力不及으로 一網打盡逮捕되엿다 但秩序는이미恢復되엿다 그리고右兵舍及附近은 目下警官隊가嚴重警戒에當하고잇다 （寫眞은슈公）

고잇든事實이判明되기때문이다

原田男首相訪問

【電通東京電話】 西園寺公秘書原田熊雄男은 二十八日午前九時十分永田町官邸에 岡田首相을 訪問하고 軍縮準備交涉에對한 日本政府의 根本方針及 近日閣議에서 決定할軍縮會議訓令案에對하야 詳細聽取하고 同四十分에 辭去하엿다

北鐵幹部撤歸 타스通信否定

【莫斯科二十八日發聯合】 北鐵從業員逮捕에關連하야蘇聯政府는 北鐵에在한白國人幹部의更迭을斷行하기로 決定하얏다고傳하고잇섯는데 二十八日右消息을 타스通信은 否定하야 左와如히發表하얏다

關係當局에서接受한情報에依하면 北鐵幹部의撤歸等은全然誤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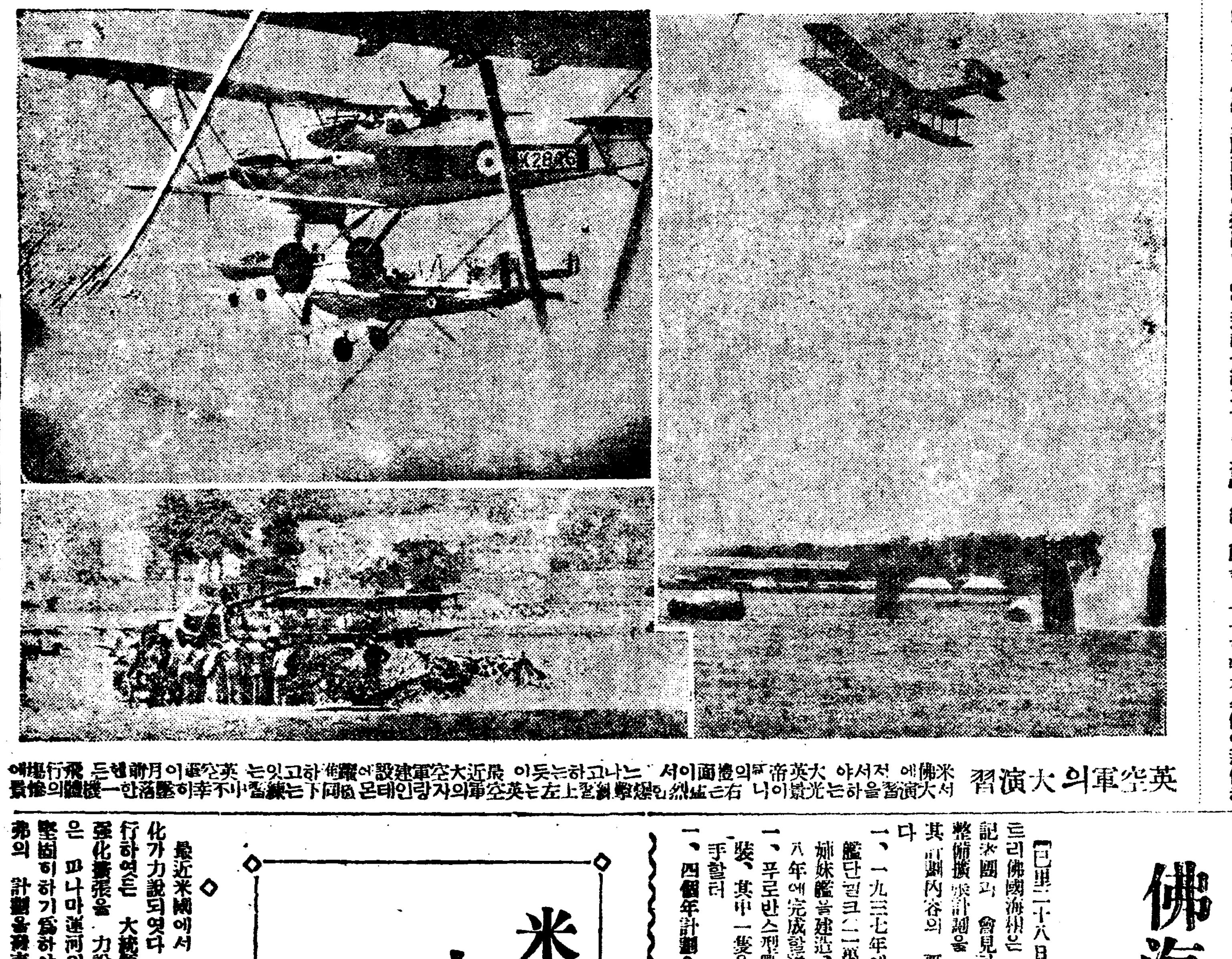
『나치스』暴動計劃 四人에게서確證蒐集

墺首相各國에提示

【電通維也納廿八日發】 墺太利首相쉬슈닉氏는 去七月二十五日나치스暴動事件이墺太利나치스黨에依하야 計劃되엿다는確證을나치스四人으로부터 어더此를英佛伊等外國政府에提出하야 此를國際聯盟에提訴할는지又는 獨墺間의直接交涉에막길는지그判定을求할決心이라고傳한다

護國軍兵逮捕

【電通維也納二十八日發】 維也納警察에서는 二十八日夕刻突然維也納兵營을襲擊하야 二十名以上의 國衛軍兵士를逮捕하엿다 右는多數나치스黨員이維也納國衛軍에編入되여 其行動을 一一히나치스側에通信하



英空軍의大演習

米佛에전서야 大英帝國의方面이서 드나고하는듯이 最近大空軍建設에躍進하고잇는 英空軍이月前든 飛行場에서大演習을하는光景이니 右는猛烈한爆擊練習 左上은英空軍의자랑인테온 同下는練習中不幸히墜落한一機의慘狀

日蘇戰端開始하면 獨波가蘇聯攻擊?

兩國間에軍事密約說

【倫敦發】 極東에잇서서의日蘇關係의險惡化가 事實以上으로歐洲政局에서 物議되여잇는其裏面에 日本의對蘇宣戰을機會로蘇聯을 攻擊하려하는獨波間에密約乃至默契가잇다는것이當地有力한 情報通에依하야暴露되엿다 右는獨逸과波蘭間에締結된 獨波十年政治休戰協定（兩國은向後十年間 蘇聯問題 少數民族問題 其他兩國間에介在한政治的紛爭을 行치안는다는協定）中에 秘密條約으로成立되엿다한다 其內容은傳하는바에依하면 例의有名한나치스黨外交部長 로젠베르히案에基하야蘇聯의一部의 自國植民地化를目的하는 獨波軍事密約으로其實行條件으로는 日本이 極東으로부터蘇聯을 攻擊할境遇에 機會를엿보아 獨波兩國은共同動作을取하야 獨逸은海軍으로레닌그라드로부터 波蘭은 其陸軍으로 우크라이나로부터 蘇聯을挾擊하야莫斯科를攻擊하야 蘇聯으로부터 우크라이나를 分離식혀 天産物이豐饒한同地方을 自國의植民地로化하야 黑海에海路를發見하는同時에발틱沿岸에도 進出하야海岸의出口를要求하고 獨逸은波蘭으로부터 海路를엇기로約하엿다하며前般獨波通商協定中에兩國의密約이成立되엿다는 에코드파리紙의 報道를波蘭當局은否定하나 前記政治協定에關하야는言及하지안코 또獨逸側은 沈默을守하야 于先其海軍力의 擴張必要를 最近聲明한것과 日英同盟의再燃報道에도神經을 날카롭게하고잇는것과 더욱波蘭이其軍人出身인 外相벡氏와首相필스드스키 元帥와의合作外交로 近來佛國의援助下에서기를 바라지안코 도리혀 獨逸과提携하여 新國策을遂行하려하는것 그리하야 今夏佛國提唱인 東歐相互援助條約案에對하야는 獨逸과가티不歡迎하는態度를갓고잇는것 最後에蘇聯은 極東에잇서日滿兩國에備키爲하야歐洲에軍事同盟을求한事實이잇스니이것이東歐相互援助條約案으로되여 蘇聯의西邊國境의 完全한保障을하려하고잇고 其聯盟加入도 近日實現過程에잇다는것도 綜合하면 日蘇關係를中心으로한 歐洲外交의裏面工作은 注目되여잇다

蔣氏를中心으로 外交會議開催

汪黃兩氏對日外交再檢討? 顔顧兩氏盧山向發

【南京上海二十九日發】 靑島에避暑中이든顔惠慶、顧維鈞兩氏는昨日南京에入하야 汪精衛氏와會見하고 最近歐洲政狀其他에對하야報告하엿다 兩氏는十九日南京發盧山에赴하엿는데 汪精衛氏도一兩日中에盧山에赴할豫定임으로玆에蔣介石氏를中心으로 國民政府의外交會議가開催케되엿다 顔、顧兩氏는歐米視察의結果에基하야 汪精衛、黃郛兩氏의對日外交의再檢討를主張하야 極力歐米派의地步確立을策하리라고 觀測되나現在蔣介石、汪精衛兩氏의對日政策은 暫時從來의親和策을 繼續하면서 他方現在의日蘇關係、軍縮會議의趨移 特히英米의結合에依한日本孤立化等國際關係에深甚한注意를拂하는모양이다 今次의盧山外交會議에依하야이것이如何한變化를밧게될는지는各方面의注目을集中하고잇다 （寫眞은 顔氏）

三省次官協議

【電通東京電話】 在滿行政機構改革에關한 陸、外、拓三省間各省案의 事務的說明은大略終了되엿슴으로 三十日定例次官會議散會後橋本陸軍、重光外務、坪上拓務의 三省次官이殘留하야그後의 折衝事項에關하야協議할터이다

農耕禁止令取消 陳情却下

米아州日本農民被壓

【피닉스（아리조나州）二十八日發聯合】 日本人農民十三名과 가티 土地法解決까지 農耕禁止를當한 제라드農事會社는農耕禁止令에異議를申立하야 其取消를陳情하엿다 피닉스高等法院判事헬프스氏는 二十八日右申立을却下하엿는데 同禁止令을受한 日本人十三名은 土地法違反嫌疑로 公判에廻附될터이다 同地裁判所檢事는 右農耕禁止令을 더욱公衆化하기爲하야 近近必要한手續을取하겟다고言明하엿고 日本人農民十三名은 事實上生計途를빼앗기게되엿다

佛海軍擴張計劃

피海相記者團에發表

【巴里二十八日發聯合】 피에트리佛國海相은 二十八日新聞記者團과 會見하고佛國의海軍整備擴張計劃을 發表하엿는대 其計劃內容의 要旨는左와如하다

一、一九三七年에完成할 戰鬪艦단컬크（二萬六千五百噸）의姉妹艦을建造、同艦은一九三八年에完成할豫定

一、푸로반스型戰鬪艦三隻의改裝、其中一隻은二個月內에着手할터

一、四個年計劃으로서 海軍諸施設의改善을行함

가、海軍各施設의改善

나、地下重油탕크의建設 其中一個所는 이미아얏치요에建設되엿다

一、地中海沿岸의알젝과及모록크砲臺를改裝하야最新式設備를行함

軍縮根本對策의 廟議決定文案

四日閣議에上程

【電通東京電話】 軍縮會議의根本方針에 關한廟議決定文案은 이르면八月三十一日느저도九月四日閣議에 上程될터인데 同日의 閣議에서는 根本方針을決定하는同時에 訓令內容까지도 決定함은 困難함으로모든決定을하기까지에는그後로도三、四日의時日을 要하고九月七日頃이나될것이다 또華盛頓海軍條約廢棄의 方針에對하여는 그期日이問題이나 此는別個로 國際情勢를잘보고 決定될터이다

米軍部가力說하는 太平洋防備强化

五五三比率承認代償을返還 明年會議牽制가目的

◇ 最近米國에서 太平洋防備强化가力說되엿다 即하와이로旅行하엿든 大統領은 眞珠灣의强化擴張을 力說하고 陸軍省은 파나마運河의 防備施設을堅固히하기爲하야 三千五百萬弗의 計劃을發表하엿다 其他알라스카와 알류시안諸島에空軍根據地를設한다는等 여러가지計劃이喧傳되여잇다

이러한 太平洋防備强化論은 二個의根據로부터出發되다 一은一九三五年 海軍會議에對하야 日本이五•五•三의比率廢止를主張하고잇슴으로 其牽制策으로 또하나는 萬一比率主義가 깨여저海軍協定이不成立되든가或은 日本이現在以上으로優勢한海軍力을갓게될境遇 其後에잇서 對日策의準備를含함이라한다

이 太平洋의 防備를强化하는것이 日本의脅威가 되다는것은 一九二二年華府會議時에 日本이五、五、三의比率을承認하는代償으로太平洋의 防備協定을締結하엿다는것이깁히米國人의머리에 浸入되여잇는듯함으로日本이比率을 廢棄하면 太平洋의防備를强化하겟다고威嚇하려는心算이다

또파나마는 米國에對하여生命線이다 그럼으로此를絶對安全케하기爲하야 日夜苦心하고잇다 그래서 하와이와파나마의防備强化가絶叫되여잇다 그러나이것으로 아직不足함으로더욱空軍으로서 日本의艦隊를牽制하려는것이 空軍의大擴張案이오 알라스카 알류시안의空軍根據地設置說이다

그리고世上에는아직알니지안은問題이나 最近米國政府는南太平洋의파나마運河로부터 六百浬를隔한 코코스群島를 코스타리카로부터 또同一千浬를隔한 가라파고스群島를 에콰도르로부터 買收하기爲하야 秘密히兩國政府와 交涉中이라한다 此는勿論日本이 南洋群島를갓고잇슴으로 此에對抗하기爲하야 前進根據地로할것이다

◇ 이事實은 米國作戰部의낙스大佐가最近『네•블인스티튜트프로시덴더』에 發表한『海軍과國家의生命』이라고 題한論文中에日本이 九個國條約을 깨친 以上 太平洋防備制限은 撤廢하드라도 可하다고主張하며 가라바고스群島其他를 獲得하는것이 必要하다고力說하고잇는것을 보드라도 想像하기쉬운 다 그리고 알라스카에對하야는上院議員 로빈손氏가『日本의알라스카侵略』說을 發表하자 依然問題되여 陸海軍에서는 愼重行動을繼行하고 海軍에서는 明年에 알류시안近海에서 大演習을行할計劃이라한다

◇ 勿論明年度會議에對한 日本牽制策의意味가 多分으로包含되여잇다는것은 過般海軍大擴張計劃인 빈손案과同樣으로其全部가반드시 實現되리라고는 思惟되지안는다 더욱以上計劃中에서 알라스카의空軍根據地計劃은同地方의 地理的事情으로非常히 有力한것이라고는思惟되지안코 또하와이파나마等의强化는 米國에對하야當然事로太平洋防備協定의 範圍外의것임으로 日本으로서는當然豫期하엿슬것임으로 只今 새삼스럽게 問題視할것은안이나 그러나 最近海軍大擴張計劃이라든가 空軍大擴張計劃이라든가 또는其防備强化라든가米國軍部의 對日作戰强化의態度는注目할必要가잇다

滿洲國、北鐵機構의 全般的大改革斷行?

經營의均等權獲得을目標 蘇聯側의專斷을一掃

【電通新京二十八日發】 滿洲國은 蘇聯側의常套手段인遷延主義로서 北鐵讓渡交涉을드듸여 停頓케하고兩國共同管理인純營利的企業의 性質을忘却하고徒然히滿洲國擾亂의 政治的根據로한幾多의事業에鑑하야드듸여 北鐵機構의全般的大改革을斷行키로 決定하얏다 그根據及內容은左와如한것이다

一、內部的機構의改革 管理局의不合理한 制度및人事의改革을 斷行하고滿洲國側에서 優秀한從業員을늘너어經營의均等權을獲得함

二、赤化및 不正從業員의掃蕩

三、蘇聯의軍事材料의輸送을拒絶함

以上의項目에亘하야 滿洲國側에서는 北鐵이 自國治權下에잇스면서 蘇聯의손안에서 움즉인다는矛盾에비초여、北鐵을 現狀대로 存續함은 到底히참을수업는일이라하야 近日北鐵蘇聯側의專橫을一掃키로되엿다

赤色테로의損害를 支拂運賃에서控除

關東軍戰區當局決意

【新京二十八日發聯合】 露人테르의指令下에 北鐵線上에跳舞하는 赤色테로의反滿工作은 最近더욱露骨的으로되고 또軍用列車襲擊背後에는 彼等의손이움즉이는 確證이나타낫슴으로 關東軍戰區司令部哈爾濱支部長은去八月九日附 公文으로서北鐵副理事長쿠즈네•조프氏에게 日本軍은 北鐵에對하야支拂할運賃中에서 列車事故에依하야生한 三十九萬圓을控除한다는旨를通告하얏다 右는南部線東部線等에亘하야 頻發되는無數事件에對하야 隱忍自重하야온 關東軍戰區當局의責任一切을明白히하기爲하야 通告한것으로 北鐵側으로부터如何한回答에接할는지趨移는注目된다

八面鋒

日英同盟說이 들리고、獨波默約說이 傳하고、蘇佛接近說이 떠돈다。◇ 合하고離함은 조치만、分하고破함은 조치못한일、國際間의離合이 무슨兆朕일가。◇ 『第二次世界大戰』이 갓가웟다 國內의團結을圖하라는고 죽은듯하든 關錫山이 웨친다。◇ 蔣介石牽制든지 무엇이든지 말만은 바르달、實行까지 바르면 더욱바르듸。◇ 農民의食糧만은 『집행』안도록單行法을 議會에 提出하리라고。◇ 고마운處分이오、그러나 今年의當番대로 黨하고、明年부터（議會時期關係로）도말등말등하오니、南無阿彌陀佛。

瓦房店事件解決

岩佐憲兵司令官折衝으로 領事館側과警察互讓

【奉天電話】 滿洲國瓦房店에서의 不祥事件은 領事館側이警察力을排除하야 軍憲과協力하고警察官의 事代理를 解任하얏기때문에 關東廳警察官三十年의慣例를打破하야 그信用을破壞하는것이라고 關東廳側을硬化케하야 드듸여 末光瓦房店署長以下十三署員의 召喚狀拒否에까지發展하고 領事館對關東廳의對立은 極度로 尖銳化하야 事態는가못急迫케되엿든바 此를憂慮한菱刈關東長官은 마침初巡視에南滿各地에向하야 出發한岩佐憲兵司令官에게 이收拾을依賴하얏슴으로 同司令官은二十七日瓦房店到着後三浦憲兵隊長、林井司法領事、太田營口領事及關東廳靑木警務課長其他와 會見하야事情을 聽取한後翌二十八日午前十一時부터奉天總領事館에서 調停折衝會議를開始하얏다司令議에서領事館側은法律擁護 關東廳側은在滿警察官의信用回復의 立場에서各各自說을固持하야 讓步치안코議論을 交하기九時間만에午後八時에至하야겨우兩者間에

一、本密輸事件調査에當하야는關東廳出身의 檢事事務取扱의參與를認함

二、關東廳側의調査에依하야警察官側은不正한事實이업다할지라도本件에關한檢事의取締에服從함

이라는解決方針을認하야 國家非常時인今日 誠意서言動을愼重히하고 協力을主旨로하기로意見一致되야 紛糾는겨우解決點에達하얏다

陸軍試案適切을 陸相이說明

【電通東京電話】 二十九日陸相官邸의 非公式軍事參議官會議席上에서 在滿機構改革問題에關하야 林陸相은陸軍試案은滿洲國의完全한 發達이라는大乘的見地에서 第三者의公平한立場에서서 立案된것이며또가장適切妥當한案이라고 確信한다는旨를述하고 其實現에對하야充分한決心과覺悟를 갓고잇다는것을發表하엿다

拓務首腦部

在滿機構改革問題로 拓相官邸서會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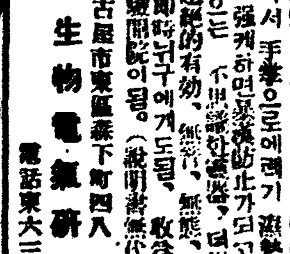
【電通東京電話】 拓務省은關東廳에서 어제二十九日午前十時부터 拓相官邸에 田兼任拓相의出席을어 首腦部會議를開催하고 坪上、北島殖産局長、田中兩次官、生駒管理局長、川席하야 生駒局長으로부터 在滿機構改革問題에關하야 陸軍、外務兩省과의事務的折衝經過를報告한다음 北島局長으로부터 內閣法制局方面에對하야 說明한內容을報告하고 坪上次官으로부터 本件에對하여는 三省間의事務的折衝이圓滑히進捗되여 來週陸軍、外務、拓務의關係省間의事務次官會議를開하고 交涉을進捗하게되리라고信한다는旨를述하고 瓦房店密輸事件에對한 關東廳의報告를兼任拓相에게報告하고意見을交換한後同十一時半散會하엿다

人事・集會

▲有賀光豐氏（殖銀頭取）三十日午後九時四十分發渡東 ▲安井秘書課長 同上 ▲水間美繼氏（殖銀理事）大阪支店으로轉任人事次來社 ▲野田新吾氏（殖銀理事）新任人事次來社 ▲尹愼榮氏 二十六日苑洞自宅에서遭內艱喪 ▲牧山耕藏氏（朝鮮新聞社長、代議士）二十九日午前六時四十五分着入京朝鮮호텔에 ▲關水武氏（慶尙南道知事）二十九日午前八時二十分着入京 天眞樓에 ▲金瑞圭氏（慶尙北道知事）二十八日夕入京 龍山屋旅館에 ▲富樫不苦矢氏（同官房主事）同上 ▲宇野友八氏（慶北地方課長）同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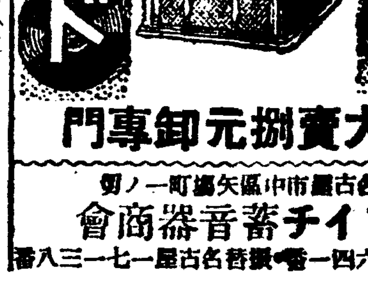
特許 六法醫法器 絶對療法

◎◎不思議한療法으로서日下內熱間好評出中에 絶對獨創的인 ◎一指觸處에 찌ー르한感電이손바닥에서六大刺戟을放射함 本器는術者의身體에裝置하야서 手掌으로에레기 其他六大刺戟을 病의自在로放射함



名古屋市東區森下町四八 生物電氣研究所 電話東大三二七九

御問屋 蓄音器 レコード 各社 大賣捌元卸專門 カタログ進呈



名古屋市中區矢場町一ノ切 アイチ蓄音器商會 電話中一六四一番 振替名古屋一七一三八番

農林省施行動力精米機比較審査中位入選 商工省發明獎勵規則에依하야帝國發明協會表彰有功賞 同省地方表彰優等賞 絶對無砂搗 自働除糠 研米完成더구나能率絶對大 特許新案六件有 卓越한諸點은絶對他의追從을不許 ウエダ式精米機 發賣元 名古屋市西區泥江町二ノ八 服部商店 電話西局⑥二七七六番

代理店募集 一町一店限 メヌマ式純良植物性高級ポマード ファスト高級植物性ポマード 大型定價六十錢 打替四圓六十錢 中型定價三十五錢 打替二圓六十錢 ファスト特製植物性ポマード 大瓶定價 打替壹圓八拾錢 發賣元 名古屋市中區矢場町一ノ切十五 坂田良七商店 電話中局〇二一八 振替名古屋一九〇〇六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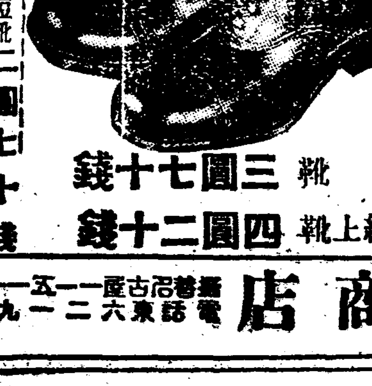
(現品縮圖) ¥0.60 ¥0.35

實用新案第一六五五三一號 川本式ポンプ 高級新メザメポンプ（新發賣品） 高所送水防火兼用 『カタログ進呈』 實價 三寸二分 十六圓 三寸五分 十八圓 自由カラン付

全國到處의ポンプ鐵物店에서販賣 製造元 川本製作所 名古屋市中區大池町一丁目 電話中四四五五 二七七 受信略號ナゴヤポンプカワモト

高級紳士向 ボタン付總革靴 極上等牛總皮底品質保險 深型靴 五圓五十錢 短型靴 四圓五十錢

フレンチ型 流行尖端總革靴 本品은絶對로機械를使用치안코全部手製임 上等總皮底 短靴 三圓七十錢 編上靴 四圓二十錢



堅牢無比金釘打込 靑年訓練總革靴 短靴二圓七十錢 編上三圓五十錢

名古屋市東區淸水町前局 松山商店 電話東六二一九 振替名古屋一五一

中勞働者入國制限 總領事抗議를提出
今日總督府外事課를訪問하고
當局은抗議一蹴方針?

만주사변당시에 격감되엇든 조선내재류중국인 로동자는 최근다시격증하야 오만을돌파하게되야 총독부에서는 조선내의로동시장의 경쟁을 완화하야 조선내의실업자를 구제하겟다는의미에서 구월일일부터 중국인로동자의 조선도래에대하야 여러가지 조건을부치어 입국제한의 방침을세웟다함은 긔보한바와갓거니와 이중국인로동자의 입국제한실시긔를 압두고겨우이틀밧게남기지안흔 이십구일 오전십시에 경성주재중국총령사(總領事)로춘방(盧春芳)씨는 돌연 총독부에 나타나 전중(田中)외사과장을 방문하고 전긔 중국인 입국제한에대하야 약두시간동안이나 그내용을듯고 항의를 제의한바잇섯는데 총독부당국에서는 국제문제이니만치 사태를 중대시하고 일절 외간에발표치안코 비밀리에 대책을 강구중인모양이다

만주사변이후에 일중관계는 극히 원만치못하여 외교교섭에 여러가지로 원만치못하든 이때에 이와가튼 까다로운문제가 생긴것은 다소간 주목을끄는바이다 그러나 중국측으로서는 항의적태도로 나온다하더래도 총독부당국으로서는 현재조선의 현실문제로서 년래의 실업자구제와 작금량년간 삼남수해지의 리재민구제등의특수사정에하야 로동시장의경쟁을 완화할필요가 잇음으로항의는 단연히들을수업고 현재조선에들어와잇는 로동자에한해서는 용인하겟다는 정도의태도를취할모양갓다

"入國禁止와가튼 遺憾된處事이다"
結局은外交交涉이되리라는
在京金中國領事 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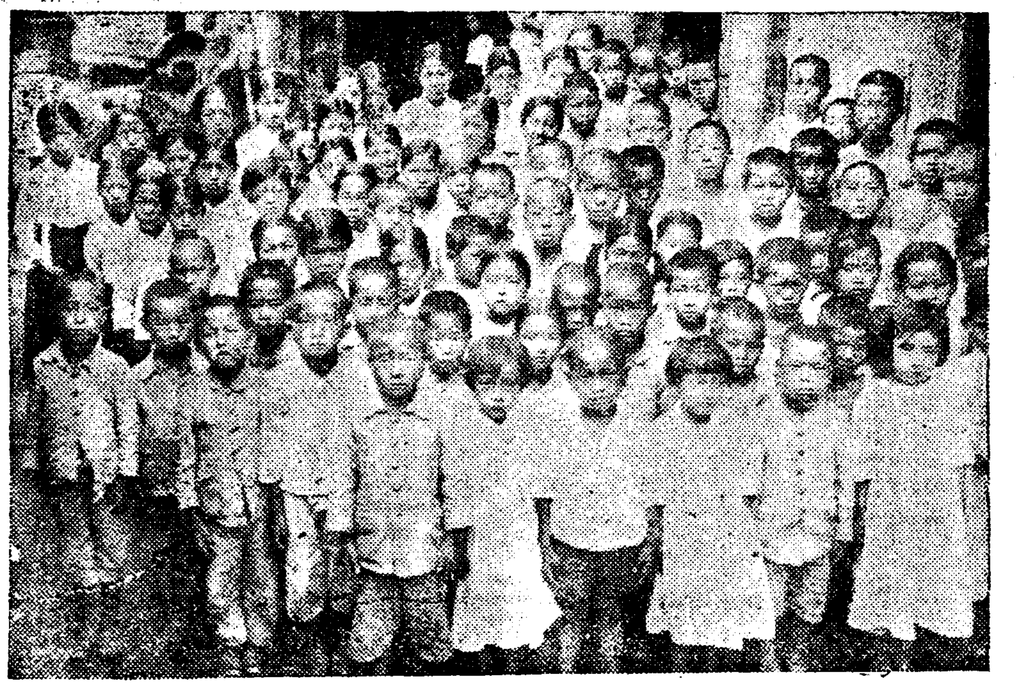
별항과가튼 중국인 로동자입국제한문제에 대하야 총독부에항의를 제출한 명치정(明治町)에잇는 중국총령사관으로 총령사를방문한즉로(盧)총령사는마츰외출부재중이오 령사김조혜(金祖惠)씨가 대신나와다음과가티말하엿다

『오늘총령사가 항의를하려갓든것은 사실이다 신통한회담은엇지못하엿스나 지금것 중국인은조선당국에 큰폐해를 끼친일도업섯고 또중국에서 일본인이나 조선인의 입국을 제한치 안는이상 조선에서 중국인에게그러케 대하는것은 국제신의상매우 재미업다 그리고로동자가백원이상을 가지고 와야만된다는것은 사실상은 입국금지와갓다 외교부와 일본주재공사관에도자세히 보고하엿스니 결국문제는 외교부와 외무성간으로올마갈것인데 일중량국의 장래를위하야 총독부당국에서 신중한고려가 잇기를 바란다』

中國勞働者의 排斥은아니다
總督府外事課當局 談

전긔의 중국총령사관항의에 대하야 총독부당국 관계과(課)의 모당국자는 다음과갓치 말하엿다

『항의가잇는것은사실이다 그러나 아즉이에대한 대책은업다 관계각국과와 협의한후대답할터인데 결단코 중국로동자를 배척하는것이아니고 중국로동자를 위하여서도 조흔조건으로생각한다』



弼雲洞劉總代 被打事件에 聯合會가憤慨

지난이십오일밤에 시내 필운동(弼雲洞)총대 류승복(劉承復)씨가 그동리 백모(白某)와동회긔부금과 수해구제비등으로 충돌되야 부상하고 방금 수창동(需昌洞)광제병원(廣濟病院)에 입원치료중인 사건에대하야 시내정동련합회(町洞聯合會)에서는 역원회를열고협의한결과 지난이십칠일에는 대표백광옥(白樂玉)장긔홍(張基鴻)의 량씨가 경성부윤을 방문하고 엄중처단할것을 진정하얏고 이십구일에는 역시동대표 리종민(李鍾敏) 한규명(韓奎明) 백남두(白南斗)외삼씨가 종로서장을방문하고엄벌하야 달라고 진정하얏는데 백모측에서는 류씨를걸어경성검사국에 상해죄로 역시고소하얏는데 류씨측에서는 신문지상의광고사죄를요구하여그동안 타협이되렷 하얏든것을 백모측에서 응치안어서 마츰내쌍방의 고소를보인것이라한다

臨時府會압두고 府會員軟化工作
大邱의某班閥에依托하는
伊達京城府尹의苦心

경성부의 비정조사상임위원회의보고서는 그동안 긔초위원들이 초안을작성하든중 그작성이 완료되엿스므로 이십구일에는 이것을 인쇄에 부치엿는데이것이끗나는대로 오는주일에는 상임위원회를열고 거긔따라 림시부회를 소집하리라는바 상임위원회와 림시부회를 압두고이달(伊達)부윤에 대한 부회원들의 공긔가 자미롭지못하고 부청기타간부에대한 평판도 조치못한데대하야 적당한 공작(工作)을하노라고 이십구일오전에 사층의원실에 부윤이하 각과장이모여 무엇인지구수응의(鳩首凝議) 한바가잇섯다 일방이달부윤은 조선인부회원들의 공긔를돌리어 자긔에대한 공긔를호전식이고림시부회의공긔를완화식이기위하야그동안이달씨의전임지인대구(大邱)에서이달씨와친수한친분관계를 매젓든반벌(班閥) 과재벌(財閥)을아울러가진 모씨를 불러올려 그동안말성잇는 부회원의 연화공작(軟化工作) 에힘을써왓는데그동안전긔모씨가 자긔사정으로 인하야대구로 도라갓섯든바 그를다시청하야다가 제이단적공작강화(强化)를식이기위하야 동괴하얏다한다 전긔모씨는 이십구일오후다섯시 경성역착의 특급으로입경하리라는데 이달씨의 암중비약이 흉문된 부회의공긔를얼마나완화식일는지실로흥미잇는문제라고한다

新京龍井間飛行은羅南까지

【新京二十八日發聯合】 만주국항공회사에서는 오는 시월에 현재의신경룡정간(新京龍井間)의 정기항공로를 라남(羅南)까지 연장하기로결정하얏다 이항공로의 개설은 체신성에서 개설준비중이며 일본해횡단항공로와 련락하려는것인데 실현되면 동경파신경을 연락선으로련락하는 최단거리로 현재의 조선항공로보다 삼백키로 삼시간여의단축이다

妻에精神이빠저 糟糠妻를虐待
男便걸어警察에說諭願

이십구일아츰 열한시경에 종로서에는시내림정(林町)이백구십번지 오영자(吳英子)(二二)라는 녀자가 차저와서 시내장사동(長沙洞)일백이십삼번지에사는 그남편 호건준(扈建春)(五五)을불러서 그를거두어주도록 설유해달라고 애원해왓다 그의하소연을드르면 그는그남편과 이십년전에 결혼하엿는데 십년전부터 남편은 김인경(金仁景)이라는 젊은첩을어더가지고 전긔장사동에 살면서 거진그안해를돌보지안타가최근에와서는아주한길에 조차내보내서 길거리에 방황하다가 그만병까지 드러서 갈데가업다는것이다

威海衛日本人商店被襲

【天津二十八日發聯合】 일본인경영의대동공사(大東公司)위해위(威海衛)사무소를다수폭한이습격하야 소원세명을중상식히엿는데사실은이십삼일오후아홉시동해반점(東海飯店)으로부터 귀도의길리에서공공의원(公共醫院)사용인류모(劉某)의모욕적언사를 듯고 소원한사람이 힐문한즉 도리혀때리기를시작함으로다른소원이 류모를 주일작정으로덤버들엇다 이때에 순경이호각을불어 로동자 삼백명이쇄도하야 세명의 소원을 뭇매질을 하야 그처럼 중상을입고 겨우탈주하야 목하입원치료중이며 제삼감에까지 사건의진전을 감시하려고위해에 출동하얏다

"母校"를파는 惡辣한詐欺
백주에생눈알을뽑히듯이
헐벗고正直한七高生

모교(母校)는 정답다 모교의선배라는바람에 얼정하게 속아서 양복은물론 모자와구두와 안경까지 떼키우고 벌거숭이가된정직한학생기질ー 본정(本町)일정목사십구번지에 와잇든 칠고(七高)생도남수창(南秀昌)은이삼일전 밤아홉시경에 욱정(旭町)일정목 회빈생명보험회사아플지나가는데 나히 삼십세가량의 일본청년이달려와서 자기도 칠고출신인데 모교학생을 맛나니반갑다고하면서본정삼정목중국료리점천흥루(天興樓)지정으로끌고드러가서료리와술을이원어치가량먹고나서는 그부근에 역시칠고출신이잇는데 자기가가서다리고올터인데 그를 깜작놀래기위하야 남수창의 정복을빌려서입고 가고십다고하엿다 남수창은 그사람의친절한 우정에아주감격한판이라 그만입엇든옷을 버서주고 모자는물론마지막에는 안경까지버서주고 내복바람으로안저서기다렷다 이에그만 말숙하게차리고 남수창의구두마저신고서 어데로다라난후 도모지도라오지안헛다 이에 남수창은 속은줄알고 소관본정서에금고하야 그서에서는 방금 각처에수배하야 범인수사에 노력하고잇다

相思夢、脫線의秋
脫出後職業救하다가 愛人을카페보내고
誘拐罪로걸린木浦職業靑年

꿈꾸엇든 「스위트홈」은 아츰이슬가티 살아저버리고 담담한감옥에서한숨쉬고잇는청년ー 전남 목포 북교동(木浦北橋洞)정규철(丁奎轍)(三〇)은 고향에서 인쇄직공으로다니다가 목포시내 모녀학교출신리금순(李錦順=假名)(二〇)이라는 처녀와서로알게되어 여태까지 종사하든직업도버리고 그처녀에게 서울가서 취직하야 단란한가정을일워가지고 자미잇게살자고 달콤한말로꾀여 서로손을잡고 이십여일전에 상경하야 서대문경찰서관내 모려관에서 상사일동안가리묵고잇스면서 이리저리 취직처를 구해보앗스나 시골서상상하든바와는 아주딴판으로 전연뜻가리되지안코 돈은 떠러저서 당장에곤란하게되자 그때까지가젓든 아름다운생각은 갑작이변하야 그처녀를 어느카페나음식점녀급으로드려보내여빗을 어더가지고혼자 만주방면으로멀리 뛰여버릴양으로 인사소개소에 적당한자리를 구하려다니다가그만서대문경찰서원에게 발견되어 남녀가 한꺼번에서대문경찰서로 검속되어 십여일동안취조를 밧고서 처녀만은수일전에 석방되어 고향으로 가게되고남자는 유인죄(誘拐罪)로 이십팔일에경성지방법원검사국으로 넘기어방금 민(閔)검사에게 취조를밧고잇는중이다

妓生과 두쌍의逃亡軍

첫가을바람이 가벼웁자 젊은마음은 도회로만불린다ー 평양부항정(平壤府港町)염직점점원정택연(鄭宅淵)(假名)은얼마전에각처에서 집금한 그상점돈일천오백원을 가지고 일즉부터관계잇든 김금홍(金錦紅)(假名)이라는 기생을 다리고 행방을감추어버려서 평양서에서는그동안 각처에수배하고 그들의행방을찻고잇든중 그들은 그후상경하야 성명을고치고 그돈으로시내서대문정(西大門町)일정목에 당당히문방구점을열고 잇는것을 종로서에서 탐지하고이십팔일에체포하야곳평양서로압송하엿다

◇평양부박구리(璞九里)칠십구번지표관호(表觀鎬)(假名)의장남표원명(表元明)(假名)(三二)은 일즉부터평양부창전리(倉田里)기생리연화(李蓮化)(假名)(二〇)와관계가잇서서 그부모에게 걱정을듯고잇던터에 이십팔일 아츰아홉시경에 그아버지의 도장과소절수를 훔처서 은행에서삼백오십원을 차저가지고 전긔리련화를 다리고 경성방면으로도망한 흔적이 잇서서그부모는종로서에 수사원을 제출해왓다

天氣豫報 曇一時晴

七百五十四粍의 低氣壓은全南海岸에서 東進하는中이고 高氣壓은 沿海州地方에서北海道로퍼저서 滿洲方面의氣壓은약다 北朝鮮은흐리고其他는降雨로 南朝鮮內陸은雨量五十粍內外에及하얏다 明日은 天氣가조와진다

最高 二一、六
正午溫度 二一、七

治水調査委員 慶南에서三名

【釜山】 금번경남도의대홍수를위시하야 각도의 홍수란을보고그근본적대책을 확립 하고저총독부 당국에서는 림시치수조사위원회를 개최한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제일회 조사위원회를오는이십구 삼십량일간 총독부회의실에서열리게되엇는데경남도내의임명위원은관수(關水)경남도지사와 민간측으로 부산부회부의장판전문길(坂田文吉)씨와중추원참의김두찬(金斗贊)(昌寧)씨의세사람이라고한다

教員同志會事件 最高五年役言渡
二十八日海州地方法院에서
求刑보다多少輕減

【海州】 서당소유토지(書堂所有土地)로써 공산주의부락을건설코저 의식적동인 사십여명을획득하는일방 자긔가가르치는 어린아동들을 규합하야비밀결사를 조직하고 비합법적긔관지를 발행하는등 활동을보여조선사회운동사상에잇서서일대쇼크를준개량서당교사로서구성된교원동지회(教員同志會)사건의언도공판은지난이십팔일해주지방법원(海州法院)형사법정에서금자(金子)재판장주심과상전(上田)검사의간여로개정되엿다 개정벽두에 금자재판장으로 부터 검사의론고에는 치안유지법 위반과 출판법위반 두가지법을적용햇스나 출판법위반은 법적으로보아 적용되지안이하야 치안유지법위반의죄만 적용 한다는판결리유를 설명한후 다음과가튼언도가잇섯다한다

	求刑	言渡
金震卿(三三)	同懲役七年	五年
金亨道(三三)	同五年	同三年
鄭壽谷(三一)	同五年	同三年
李相龍(三一)	同三年	同二年
張東燁(三一)	同三年	同二年

(李相龍 張東燁은 執行猶豫五個年)

放蕩한아버지를 諫하다못해飮毒
첩을어더가지고가산을탕진
長成한아들의悲歎

방탕한아버지를 죽음으로써 간하려고한아들 이십팔일오후 아홉시이십분경에 시내운니동(雲泥洞)칠번지박완식(朴完植) 의 집에와잇든 그의아들인 양주군구리면교천리(楊州郡九里面橋川里)박영환(朴榮煥)(三三)은 아편십오그람을 먹고 고민하는것을그아버지가 발견하고 곳락원동(樂園洞)지성주(池盛周)병원에입원시켜 응급치료를 한결과다행이 목숨은건젓는데 그원인을드르면그의아버지는얼마전부터첩을 어더가지고 전긔주소에와잇스면서 가산을돌보지 아니함으로 그는아버지를 간하려 올라왓스나 그아버지가 도모지 드러주지아니함으로 드듸여 죽음으로써변한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게하려고한것이라한다

貧家庭의子女들인 壬戌講習會生熱誠
삼백여명의어린아동들이 水害同情金을義捐

시내 태평통(太平通)이정목 임술학술강습회(壬戌學術講習會)생도 삼백여명은 일제히정성을내여 현금십륙원칠십이전과 의복 륙십삼점을 수합하야수재지로 보내달라고본사로 가지고왓다 이강습소생도들은 모다빈곤한집 자녀들임에도 불고하고이러케 만흔정성을내엿슴은 오로지 기피동포를 생각하는거룩한동정의결정이다 참으로 가상한일이다 (사진은임술강습생)

雪城留學生會 四圓餘收合

평북삭주읍내(平北朔州邑內)설성류학생회(雪城留學生會)에서는하기휴가에 귀향하야잇는동안 삼남대수재의참상을 동정하야그들의 열렬한활동으로 현금사원사십전을 거금하야 본사로기탁하얏다

咸興兩學院에서 水災救金寄托

【咸興】 해내해외를물론하고 삼남수재구제 금품이 매일답지하는 항은 매일보도되는바어니와 함흥에서도 이십오일 천진스러운 소학생아동들의 거출한 귀여운 동정금의과락이두건이나잇섯는 바그는나음과갓다

▲中央學院
普通部 二圓五十錢
幼稚部 五十五錢
夜學部 二圓六十七錢

▲能仁學院
職員及兒童一同 十一圓二錢

눈물겨운同情

【開城】 삼남수해의리재민을위하야 도문역전에서 차에올으고 날이는 손님의짐짝을운반하여주고 그날그날을생활하는「구루마」군일동이일전 푼푼이 모흔돈일원삼십전을 대표로 리일규(李一珪)씨가 본보지국으로 가지고와서 모흔것이 비록약소하나 잇는사람의 일백삼십원으로보아 재지에보내주시면 고맙겟다고 부탁하엿다 이또한동족애의적성의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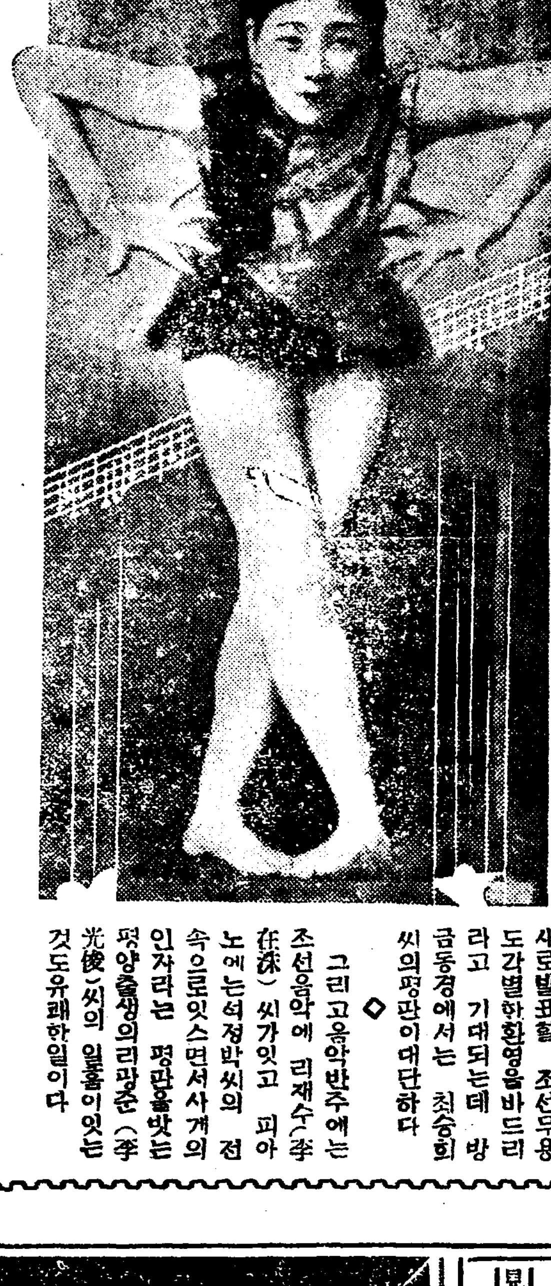
勞賃에서갈러 水災義捐提供
牙山郡屯浦面振興會員과 鳳在里洞會의熱誠

충남아산군둔포면시포리(牙山郡屯浦面市浦里) 의진흥회원일동은 삼남리재민을 위하야그들의 로동임금을 한푼두푼모아서 현금십삼원삼십륙전을 수집하얏고 역시둔포면 봉재리(鳳在里)동회(洞會)에서도 동리의집집마다 단기며 모은돈륙원을 선전을 각각본사둔포리 [illegible] 의탁하얏다

朝鮮樂의立體化
新秋·東京藝壇에서
우리의舞踊家 崔承喜氏活躍
來廿日第一回作品發表會開催
各方面의人氣가沸騰

우리조선이나은 가장 훌륭한미모의무용예술가로방금동경(東京)석정막(石井漠)무용연구소에잇는 최승희(崔承喜)씨는 우금팔년간무용예술연구에 전심전력하야 눈물겨운분투를싸어온성적의보과로 오는구월이십일밤 동경일본청년회관에서 석정막연구소주최와 동연구원들의 원조로 당당히 제일회작품발표를 하게되엿다

◇일본 무용예술계는 비상한 약진을보고잇서구미각국의 훌륭한무용가들도자조차저와 새무용이권파될뿐안이라 구라파등지에서 연구하고 온신진들도다수잇서 종처럼기술이능난하고 독창적이안이면 무대에서기힘든터인데 우리최승희씨는 타고난아름다운체격에 천품이남달리뛰여나 동경에서도 그존재가뚜렷하여왓다 그러다가이번에는 자신의창작을발표하야 한갓연출가로서만이안이고 무용창작가로서 의원숙하여가는 천품을나타내이게되엿다 그리하야 최승희씨는 조선이나은 무용가로서 이제완전히일가를 세우고나가게된것이니 빈약한우리무용계를위하야 다시업는깃분일이라할것이다



◇더구나 이번발표회의연출종목중에도 서양명곡으로랑만주의(浪漫主義)시대의 음악가의 작곡을주로한것도 주목되나 전삼부중제이부에들어가서는 전부조선곡으로된 최승희씨독창의 조선무용으로된것이주목된다 그곡목은

▲劍舞……打樂器伴奏
▲靈山舞……朝鮮古樂
▲에헤야노아라伽倻琴散調
▲豐年이오면 朝鮮俗謠
▲僧舞……朝鮮古曲

등으로 거기에는 우리고악을토대로한 전아한고무용이잇고 전원의민요곡을토대로한 민요무용도잇서 조선의 산천과인정풍속을그려내인아름다운 음악의선률이 씨의무용에의하야립체적약동(立體的躍動)을볼것이다 그중의『에헤라노아라』는 작년에도한번출연한바잇서비상한 환영을바덧든터임으로 이번 새로발표할 조선무용도각별한환영을바드리라고 기대되는데 방금동경에서는 최승희씨의평판이대단하다

◇그리고음악반주에는 조선음악에 리재수(李在洙)씨가잇고 피아노에는석정막씨의 전속으로잇스면서사계의 인자라는 평판을밧는 평양출생의리광준(李光俊)씨의 일홈이잇는것도유쾌한일이다

告訃

母親宜寧玉氏以老患今月廿八日(陰七月十九日)午後八時別世故玆以告訃

一、謹辭個別訃告伏乞內外親知寬諒
一、喪所 平壤府倉田里四八番地
一、葬禮日時 八月三十一日午前十時
一、葬地 平壤府外西華谷先塋

一九三四年八月二十八日

長子 金東元
次子 金東仁
三子 金東平
長女
婿 金日善

人造貝釦 製造發賣元
見本無代送呈
UF 藤本棵商店
大阪市天王寺西門交叉點南
電話天王寺一六七九番
振替大阪六八一〇一
工場尼崎市大物町

두통과치통에
진노ー

高血壓에 オセロ(오세로)

立木拂下

第一號 慶尙南道居昌郡北上面昌善里所在德裕山事業區第三十六林班道模範林伐採區域多百町七段七畝步地上立木
一、樹種雜(但、胸高直徑約二寸未滿의樹木並박달나무황경피나무풀푸레나무들메나무를除함)
一、見込材積二萬八千八百九十尺締
一、見込本數八萬四千一百八十七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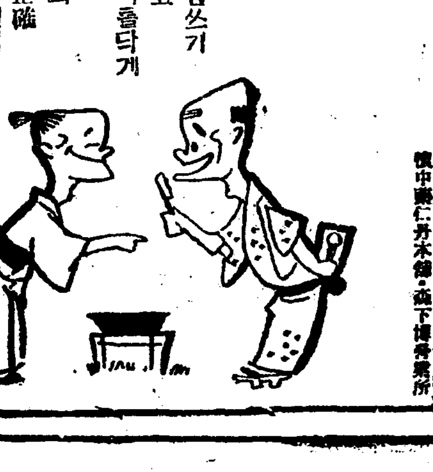
第二號 慶尙南道咸陽郡西下面雲谷里所在白雲山事業區第四十い(い는小班を除함)ろ、は、に、ほ、へ、と、ち小班(ち小班의一部除함)第四十一林班道模範林伐採區域一百三十五町二段步地上立木
一、樹種第一號와同一함
一、見込材積一萬七千九百三十三尺締
一、見込本數四萬二千二百六十本

右買受希望者는慶尙南道廳及居昌郡廳、咸陽郡廳及居昌模範林事業所에서入札心得書、契約書等을閱覽한後九年九月十一日正午限第一號는居昌郡廳、第二號는咸陽郡廳에서入札함事 但昭和九年九月十二日正午限(郵便入札이라도可함)即時開札

昭和九年八月日 慶尙南道

廣告
拜啓本店은今番一大刷新을斷行하고內容을大擴張하엿사오니江湖諸氏의倍前愛顧를大望함但郭瑨氏난本店과는何等無關係
咸興府大和町四丁目 京城藥房 白

仁丹粉ハミガキ
クリーム色德用大袋・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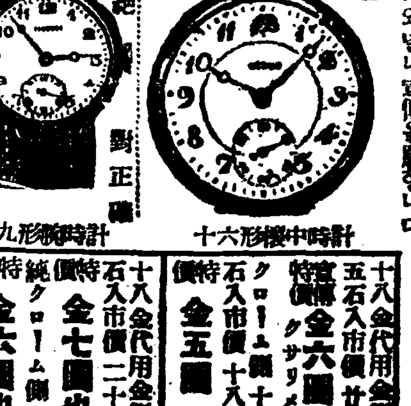


이것은참쓰기
가좃타고
斷然히이름닥게
되
祖父母의
齒齒도正確
도이번쩍번쩍

新製品萬人向特選十八金代用金側時計大賣出

●時計를買入하려는분은 必히本洋行時計部로一次御照會하시옵소서

純瑞西 新型 特製
十六形懷中時計
時間絶對正確
九形腕時計



十八金代用金側 大形十五石入 市價廿圓以上品 特價金六圓七拾錢 クサリメタル付
クローム側 十六形十五石入 市價十八圓以上品 特價金五圓 クサリメタル付
十八金代用金側 九形十石入 市價二十圓以上品 特價金七圓也 腕皮付
純クローム側 九形十石入 特價金六圓也 腕皮付

十個年保證品、先金注文送料不要
新義州府寒井町九
郵便局私書函四十二號
歐米洋行時計部
振替京城二〇五九九番

觀相 四柱

斯界에異人[illegible]先生은觀相學의[illegible]을硏究한神鑑으로서 우리人生의 吉凶禍福을判斷하게判斷하는天才觀相家이다 不迷의煩悶에厭하는人士들이여開運成功에빠른길을무르러오시오 [illegible]
其他百般에成敗得失을詳細히判斷함
料金은普通一圓流年判斷에三圓
京城府昌信洞六五一番地ノ六號[illegible]
地方人士는料金과生年月日時를明記하시고詳細父母年齡記送하시면過去現在未來를詳細히[illegible]

新體詩와 그 詩形에 關한 私見

⑦ 崔文鎭

【屈原】의詩는 在來의三百篇에 比하야 一味厭世의風說가잇서超人的境涯를 想像케하는反面 또한 他力으로는 戀戀한 人間에對한 愛着心을 多分히가지고잇섯던갓이다 詩三百篇이北人의氣質을 代表한것이라하면 屈原의詩는 南人의風格을 代表한것이라고볼수잇다 屈原은 詩篇離騷外에 九歌九章의短篇이잇다 그가 처음 創作한것이 賦라하야 至今의 散文詩와가튼것이엇다 文學發展의階段을 敍事詩 抒情詩 劇의順序로 볼것인가 或은 抒情詩 敍事詩 劇의順序로 볼것인가함은 아죽도 學界의

【議論】紛紛한 論題로잇지만 何如間 文學發展의順序로는 이三階段을밟게되는것만은 斷然한事實이다 그러나 西洋流의 方式과가티 東洋에서도 반다시 이三階段을 밟을것이라고 斷言하기에는 아죽도 우리의 研究를 要할問題이다 現在支那에는 西洋人의 所謂 Epic(敍事詩)라고하는것이업다 假令書經과易經을 敍事詩로 假定할지라도그것이 詩經이라고하는 抒情詩보담 몬저되엿는지 後에되엿는지 未分明한까닭이다 何如間 太初에 사람에게 言語가생기고 文字가생기자 사람들은文字라는形式을 通하야

【自己】의感情을率直하게쓰다 적어노흔것이 아마도글이란것이 新案되엿슬것이다 사람들은이物인글로써 自己의 思想感情을傳達할수잇게되자 多數의文字로 自己의意思를 表示하는 散文도생기게되엿스며 少數의 文字로도 散文以上의 意思表示를 할수잇는詩라는 가장微妙한韻文도 생기게된것이다 그럼으로 우에서도말한바와가티 글이 채進化되지못한것이 散文이라하면 가장精華로히羽化된것을 詩라고볼수잇다 그럼으로詩는

【隨筆】論文 小說、戯曲 劇詩等 온갓形式을갓추운 글가운데에서 가장 優雅하게 가장 高尙하게 淨化된글이다 太初原始人들이 天動과가튼 恐怖에 驚異를느기게되자 政治思想보단도 單純한그들의마음속에第一먼저 움트기始作한생각이神靈을敬拜하는宗敎思想이다 神靈을 追仰하는 宗敎思想이 發達됨을따라 그들의입으로는 自然히 노래를 부르게된것이다 그들에게

【文字】가생기기전 言語가 생긴때로부터 노래도생기엿슬것이다 아모리 單純한頭腦를가진 그들이라할지라도 韻文이엄시音調만부르는노래에는 벌서 不滿足을늣기게된時代가 닥처왓다 그들이 노래를 더한층意義잇게부르자는말이 即詩가된것이다 그럼으로 우에서도말한바와가치 詩와音樂은 古代에잇서서는 同體異衣를입은伴侶者이엇다 사람의理智가 極히 發達된以後에 생긴 小說 戲曲 劇詩等에 比하야 詩는 原始人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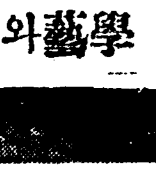
【言語】를了解함을 아는그時代로부터생긴産物이다 그럼으로原始人의言語를 詩的言語라함은 言語學者間에累累히 외우는말이다其後 理智가漸漸 發達됨을딸아韻節만 整列한듯한無味乾燥한詩에는 厭症이 생겨오자 그들은文字라는 新案物로써感想文이나 隨筆과가튼 散文을 쓰기를始作하게되엿다 그러나 單純한것보담 複雜하고變化잇는것을 즐기는사람은 一時的感情으로 울려나오는 感想文이나隨筆과가튼散文보담도좀ㅣ더ㅣ意志的인 小說이나戲曲을 쓰게된것이엿다 그러나

【文離】한時日과 多數의文字로된 小說이나 戲曲으로서 사람의 感動을 이르키기보담 極히精粹된 短縮된文字로 極히짧은 時間內에 小說이나戲曲以上의 效果를낼수잇는詩를 쓰게된것이다 그럼으로 詩는 小說이나戲曲보담 먼저原始人들이겨우 言語를了解함을 아는其時代에 생겨진것이지만 事實上은 散文時代를 거처서야겨우 今日과가튼 完成된詩가생겨진것이다 그럼으로 散文을 未開된原始人이라하면詩는現代人으로볼수잇는것이다 그러타면詩가今日과가튼 燦爛한藝術品이되기에는 반다시

【散文】時代를거처 서나온것이다 屈原이 最初에試作한詩인賦가 散文體로쓴것과가튼 例를보와서도 넉넉히 이를斟酌할수잇는일이다 拘束된詩形으로는自己의 理想한바 詩想을 自由로히驅使할수업는것으로 말하나 이것은 結局技巧問題지驅使할수업다는것은 千不當萬不當한말이다 散文體로만쓰는사람은 結局 詩人으로서의 天禀이업는사람이라하여도 過言이아닌줄로 생각한다 詩가文學의 最高殿堂이되는理由는 詩脚韻 節句 康 韻律等詩로서는 當然히 직혀야할節操를직히는

【貞烈】夫人과가튼點에잇다 近者에 넘우도 아모節制업시 散부로 늘혀노흔 散文詩는 한감에 딸리는에로女性과가태서 一時는 못男子들의 이품으로부터 저품으로 잘도구을려단이며 時勢가 醜醜하지만 一朝에 붉은빰이 주름잡고 시드러질때에는 누가 원둔에도안겨어보는것이다 우리는 헐갑에 딸리는 에로女性과가튼 散文詩를 넘우 濫造하여서는안된다 時勢가업는 粗製品을작고만들기만하면 살사람은누구던요 우리는 詩도아니요 散文도아닌 튀기가튼詩에서 斷然히

【奮起】하야 整然된 詩形을갓추운 詩로 도라가지안허서는안된다 過去歷史가 徵驗한바를 보와서도 넉넉히 이를推理하고도 남음이잇다 이小論이우리詩壇에 多少間이라도 寄與되는바가 잇다하면筆者로서는 퍽幸福으로 생각하는바이다 (完)



對米關係五十年史

韓美條約에 對한 論評

湖岩

【韓】美條約全文은 十四款으로 成立되엿는데 朝鮮約보다 一項이 줄어든것은 旣述한바와가티 李鴻章에게 依하야 力說하든 屬邦云云의 第一款이 正約中에서 拔去된 때문이어니와 그럼에도 不拘하고 該條約末에 가서 「光緖」란 年號를 쓰게된것이 자못 注意를 끄는바며 또第八款의 防穀에關하야 若干의修正이 잇섯슬 뿐이오 그餘는 거의一點一劃을 加減함이 업섯슴으로 「奢田」氏가 評이는 이를評하야갈우되 「朝鮮에서 執行한 談判은 이미三國새의 議定된 文書에 捺印하는데 지내지 못하엿다」고하엿다 이말이 파연評許인 與否는 잠간別問에 부치기로하고 먼저 이韓美條約의 主要한

【精神】이 어데잇는가하면 무엇보다도 第一條에 特書한 「……必須相助……云云」의 文句에 包含되엿다 이것은 伊前에成立된 江華條約의 第一條에 聲明한 「……朝鮮은 自主之邦……云云」의 文句와는 크게 다른 點으로 韓美條約의 根本的意義가 실로여기 잇다고해도 過言이 아닐것이다 韓美條約의 第二條에 彼此公使를 交換하게한것은 일즉 朝鮮이 日本에許하지 안튼바로서 이에 이르러 近代條約의 特色이 일층더 明瞭하야짐을 보겟다 稅率과 治外法權과 그他諸點에 잇서 多少差異가 업지아니하나 그것을 一一히 論評하려면 너무나 浩繁함으로 여기는 省略하거니와 要컨대 韓美條約은 그自體內에 가진 特異點보다도 朝鮮을

【泰】西에開放한 거기에 特殊한意義를 가진것이다 美國政治家 「존·따블유·포스터」(John W. Foster)氏는 일즉 韓米條約에 對한論評의 一節에 이러케 말한것이 잇스니 「東方隱遁王國이 西洋新共和國의 誘導로 말미암아 列國民의伴伍에 加入함을 어덧다」고하엿다 그때 倫敦어느 第一流雜誌는 韓美條約의 調印을 報道함에 잇서서「三十年前페리」의 偉功을 追想하야갈우되 「페리」는 歐洲各國을 先驅케하든 幾多의障害를 排除하고 一發의彈丸을 使用함이업시도는惡感情을 挑發함이업시 日本을 開放하야 外國과交通케하엿지만 韓美條約의 締結도 역시 極東에서 平和外交가 平和的手段으로써 成功한 一例라할것이며 이로부터 朝鮮人이 合衆國을 거처서 西洋諸國과 交通함에 이른것은실로 美國의

【公】平無私한 友情에서 나온것이라」고하엿다 (大日本文明協會出版 포스터氏著 米國의對東外交第九章 朝鮮과其國邦) 中國名士들도 이韓美條約의內容에 對하야 當時天津에 잇든 朝鮮領選使金允植을 보고 賀禮 朝鮮을 爲하야 慶賀할바라고 하엿스며 上海에서發行하는申報도 이를贊하야갈우되 「朝鮮과美國의 訂定한和約이 皆히合法이되엿다」고하엿다 (金雲養日記天津談草) 朝鮮을 泰西에 開放하는 韓美條約은 朝鮮이 締結한 모든 國際條約中에 잇서서 先驅를 지엿고 또原本이 되기에 부끄럼지 안튼 善良한條約이엇섯다 다만 美國이 當時事情으로서는 어찌할수업서 治外法權을 設定하엿스나 特히 그아래一項을挿入하야 將來朝鮮이

【法】律을 改善해서 合衆國이 相當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 이르면 朝鮮居留하는 合衆國民에 對한 治外法權을 撤回하것다는 約束을 하엿다 美國側의史料를 보면 最初韓美兩國의 期待는 韓國獨立에 關한協定만 成立하면 그後으로 생각하엿다 그러나平和와友誼와 通商과 運輸에 關한 十四個條의 協調政策한 條約을 締結하게되것은 비록 時勢의 要求라하드라도 또한 「介晤드」等의 努力에 돌리지 안흘수 업다。

學生通信

바다를건느며 (4)

平壤崇實 尹龍燮

이곳와서 商業에沒頭한사람들의 生存競爭熱이 高度化한것을보고 놀래지안흘수업섯지요 발거름이빨러요 모든것이 生을찻는빠른움직임이야요 商業이盛하다니 街頭의繁華한裝飾을生覺하지마세요 外貧內富의 무거운 都會商會이랍니다 그들의言語는 그들의交通機關과가티 繁速합니다 밤비가 부실거리니 空氣는좀 단순하여집니다 이밤의安靜을 獨占하듯이 맴이소리가처 들려오는 레코-드소리가 나그네방에조름을모라냅니다 하도조화 노래를도적하든이마음그대의목압흠가 에처럽위꿋치기를勸하여봅니다

그대의가진것은
青玉髮襟니
부서지면이울바
풀이업서숨맥히오

끗까지 듯기에마음조려 나는눈을감엇습니다 귀를 막엇습니다 그래도소리는 히미하지요

습니다 煙霧鄕의아츰空氣에波動을일으키며 松竹의青林을갈피갈피헤치며 교묘하게차저듭니다 담북담북이자리잡은竹林深綠의솔폭이 데미데미모혀슴은淡綠의雲霧가땅으로개여나는듯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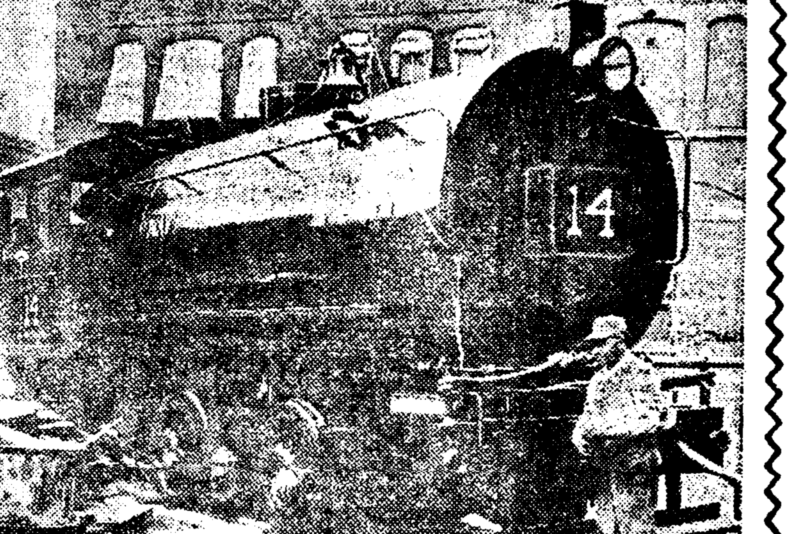
모이여! 大阪을보기에疲困하엿든 우리눈은 京都의한쪽그림으로힘을 어덧습니다 京都의거리는 完全한 安靜을차지하엿습니다 엇지도 그리마음이 沈着하여질가요 周圍와環境에쪼지안흘수업는사람인까닭이겟지요 이都市는 經濟의都市라기보다도 藝術의都라하겟습니다 집어대기는 어려우나鮮明하고도 잘整頓된거리거리엔실실이늘어진 버들가지이都市의曲線美를그려고 濃厚한樹林속에 點點이숨나드는 文化住宅들은 그네의 눈에 만흔 魅力을 가진답니다、女子들이 씩씩하게 自轉車로東奔西走하야 從業에奔忙함도이곳에서볼수잇는異彩거니와市街地를縱으로 橫으로貫通하는내물이 各樣各色임도 도한特異한現像입니다 이말슴을들으시면 兄은 곳 이都市가織造와染色工業의中心地임을聯想하시겟지요 우리는 이곳에와서S、H、두親友를만나 案內를바더가지고 구경을햇습니다

우리는 東京에마음이 끌려至今은 京都의驛頭에나섯습니다 머무를새업시 車안에드러안즈니 퍽으나 困합니다 풀랫홈에서 울려나는 뻴-로 두벗과노니여 구두마를 몰기始作하엿습니다 사랑하는兄!엇전지 이밤이 停車場을 떠나기가 실습니다그려!그러나 不得已 떠나기 실흔京都의밤거리를 뒤에두고 다라나려고하나 생각은떠나지를 안홀려고합니다

밤길을떠난이나 그네는이참의車가몹시도 困하고괴로왓습니다 이밤을질려고하나잠을일우지못하고 이리저리뒤채다가이곳의밤법파을 求景삼아車窓을 나섯습니다 오스름달밤의솔을향는深更의暴所를 지나는듯합니다 취임업시다라나는 車輪의우렁찬소리 故鄕의그리운하늘을멀리바라보게합니다 이밤은곳곳내잠을 못일우엇습니다

農村의點點이 커진등잔(燈)만이수십을 가지고지내는 이나 그네의 心情을同情하여줍니다 그려、疲困한 몸울다시 窓안에依待하고 無心히눈을 감엇습니다、(完)

불을안때는 蒸氣機關車



「뉴-욕」에잇는「부르크린」海軍造船所에서는 불을안때고도 다라날수잇는蒸氣機關車를맨드러 벌서 實用에供給하고잇다 發明者는 다른「W T크레-마」氏、原理는 「뻐일러」에서 一定熱度에達한 水蒸氣를이機關車에 다음기면되는데한번옴기면時速十二哩로約十二時間連續的으로 疾走할수잇다 騷音도업고 그리고 馬力도相當히強하면「스팀-」을맨드는「뻐일러」는 同時에同型인 此種機關車十二輛에「스팀-」을供給할수잇다한다 엇잿든 經濟的이며燃料도 퍽 적게든다한다

월급날 남편을 너무 들복지 만일

동정할가엽슨남편

월급날!월급날은 월급으로사라가는사람에게 가장저주밧는날입니다

『차라리 월급날이 업서스면 조켓다는말 한마듸가그들의괴로운생활리면을 여실히설명하고 잇는것입니다 그러나현대에잇서서 생활이곤란한것은절다 월급밧는사람만이 안입니다

월급으로사라가는 사람보다도 멧곱이나 더위협을밧고잇는사람의수가 멧곱장이나터되는것입니다

그런데 젊은부부들중에는 반가워야할 월급날이 부부의싸홈날로변하야 버리는가정이만습니다

『요스가지것을 가지고 어떠케한달을 산단말이요、가게의외상갑은 다ㅣ어떠케하며 빗은지기만하면 제일이요』

가만히 생각하면 안해의말이 결코그른것은 안이지만 그래도한달동안이나 온갖애를써가면서벌어가지고 돌아오자이지경이니남편의 마음인들 결코조흘리는 업습니다

여기에서 내외의싸홈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고나보아야 아무리의도업고 통쾌미도업고 다만 그것으로 말미아마건강에해를 끼칠뿐입니다

가정주부들이여!

당신의남편에게는 친구도잇고 또따라서 사교도할필요도 잇는것입니다 그남편이 그돈을 남겨가지고집으로 돌아가기까지에는 얼마나 가슴이압헛는지 아십니까 친구에게할일을다못하고 돌아온그남편의 가슴압흠이여!

이괴로운이야 그안해를내노코야 누가알아줄사람이 잇겟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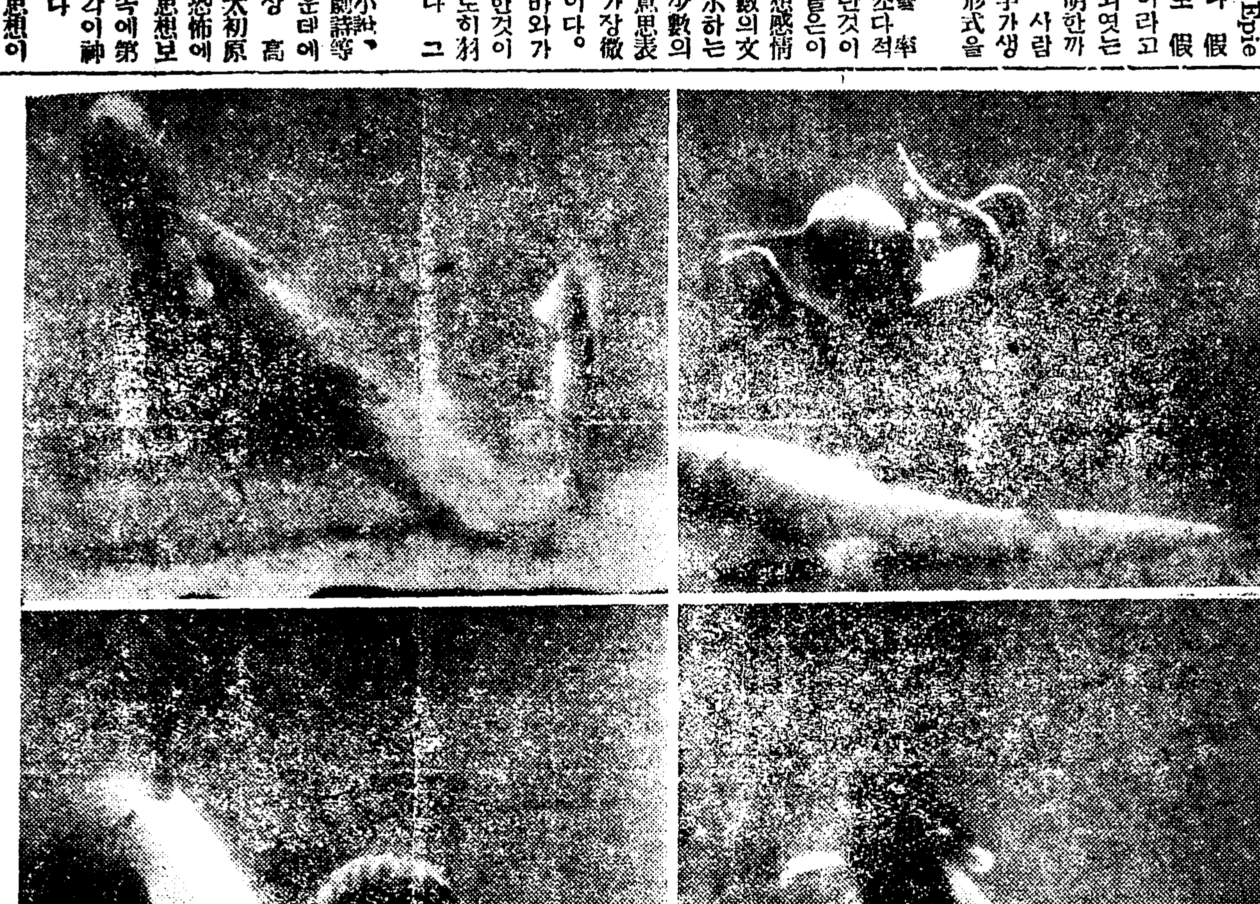
가정주부들이여!

남편의 월급봉투를 가지고 너무오래 회제를 삼지맙시다 아무리 부부간이라도 감정상할말은 될수잇는대로 피합시다

사람이란 친하면친할수록 자괴롭라해하지못하는데대한 노염이 만흔것입니다、하물며 부부사이에야 다시말할것도업는일입니다

주부들이여!

생활에 괴로운것은 대뿐이안이니 남편되는이를동정하는의미로라도 월급봉투를 가지고 너무문제를 삼지맙시다



海底의 血戰 문어와 상어사이에 猛烈한 싸움이 버러젓다 排斥하는者는 십슬우즌 상어、不意의 襲擊을바든 문어는 몸은 비록 세지못하나 隱忍自重할수는到底히 업섯다

漢詩

三角山

二等之二 勉軒 洪鍾彦

天外三峯鎭漢京
龍盤虎踞地形成
色添松檜經秋碧
氣散烟雲抵曉晴
五百歷年望秩重
三千大界俯臨平
僧師相宅知何日
空使詩人感慨生

評曰 雖無變拔而全篇淸老、其有日鍛月鍊之功、於斯可見矣、又曰今回三角山詩、筆力之蒼古、見於詞章者多、想必其老師宿儒之作、若以選數之制限、不爲入選則不能無遺珠之歎、故破前例而爲選、讀者諒之。

新刊紹介

▲朝鮮農會報 八月號 京城府黃金町二丁目一九五番地 朝鮮農會發行 振替京城三〇三番 定價拾錢

▲世界笑話集 崔仁化編 京城府鍾路二丁目九一番地 宗敎時報社發行 振替京城二一五九〇番 定價二十五錢

▲朝鮮鐵道協會會誌 八月號 京城府古市町十四番地 朝鮮鐵道協會發行 振替京城一一〇三八番 定價五十錢

▲更生 八月號 廣島縣絲崎町日本赤十字社廣島支部 絲崎療養所內 更生社發行 振替大阪七七五三一番 定價十五錢

▲西博士の著書に就て 尙志第百六十一號 廣島市千田町廣島文理科大學尙志會發行 (非賣品)

▲婦選 八月號 (主要目次) 婦選と母性保護法制定運動。女性に檄す。最近に於ける親子心中の狀況と母性保護法制定運動の契機。ナチス黨內の內訌問題を中心として 其他東京市麴町區麴町二ノ三ノ三 婦選獲得同盟發行 振替東京七〇三八三番 定價十錢

▲敎育勅語と其の草稿 尙志第百六十號 廣島市千田町 廣島文理科大學尙志會發行 (非賣品)

▲セルパン 九月號 (主要目次) 東洋のカルノ問題の重要性。ヒンデンブルグの後に來るもの。文學の不安と危機 武器製造會社は動いてゐる。共產軍の福州進出問題。其他 東京市 麴町區三番町一番地 第一書房發行 振替東京六四二二三番 定價十錢

▲朝鮮商工業協會會報 第二十三號 京城商工會議所內 朝鮮工業協會發行 振替京城一六九五四番 定價三十錢

▲小閑集 東京改造社社長山本實彥氏隨想集(主要目次) ひがら。西伯利の旅。觀艦(ヘ)。黑龍江の夕。興安嶺。旅順小言。藝術の興隆について。文藝復興。ラッセルの來朝。アインシュタインの片影。十年前。ジャーナリズムの話。十五年刊行のことば。其他 東京市芝區新橋七丁目十二番地 改造社發行 振替東京八四〇二番 定價一圓八十錢

八月廿九日(水曜)

◇午後六時三〇分 童話 봉선화와백일홍 毛麒允
◇同六時五五分 라디오學校 世界의不可思議 (二) 崔泳柱
◇同八時 夏期特別講座(第四) 性格의心理(三) 中央佛專敎授 金斗憲
◇同八時三〇分 빠이올린獨奏 一、協奏曲 나르듸니作曲 파가노併奏 第一樂章알레그로 모데라-토 二、자장가 센트作曲 三、베누엣트 파데레우스키-作曲 크라이슬러編曲 四、스-베니르 드르들라作曲 五、론도 슈버ㅣ트作曲 金斗憲 洪志裕 金元福
◇同九時 連續古談 昭陵의變 (二) 申鼎言
◇同九時三一分 時調 一、千時調 가、萬頃蒼波 나、秋夜長 二、男唱지름 三、詞說時調 (赤壁에敗한孟德) 四、○編(鄭讀春秋)

八月三十日(木曜)

◇午後〇時五分 古談 李大將 金無言
◇同二時 文藝講座 飜譯文學
◇同六時三〇 童謠 金岸曙 一、齊唱 하모-니카 二、齊唱 집신 三、齊唱 식골집 四、獨唱 고향하늘 五、齊唱 밤세울울다가 六、齊唱 뻥사공 七、獨唱 어머니가슴 八、齊唱 하하호호 和光敎園東大門分園兒童 피아노伴奏 李淳光
◇同六時五五分 라디오學校 讀書期를마지하며 延禧敎授 鄭寅燮
◇同八時 夏期特別講座(其四) 性格의心理(四) 中央佛專敎授 金斗憲
◇同八時三〇分 歌曲 一、羽調平擧 二、羽調頭擧 三、編羽樂 四、還界樂 五、編樂 金珠 金春紅 洋琴 金相淳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宰
◇同九時 流行歌 一、가시옵소서 二、나리는이슬비 三、밤에피는꽃 四、무지개 五、님그리는燈台 六、가세바다로 姜弘植 파아노 金駿泳
◇同九時三一分 俗謠 一、關山戎馬 二、寧邊歌 三、배다래기 四、山念佛 五、난봉가 鄭錦紅 빠이올린 金基玹 金致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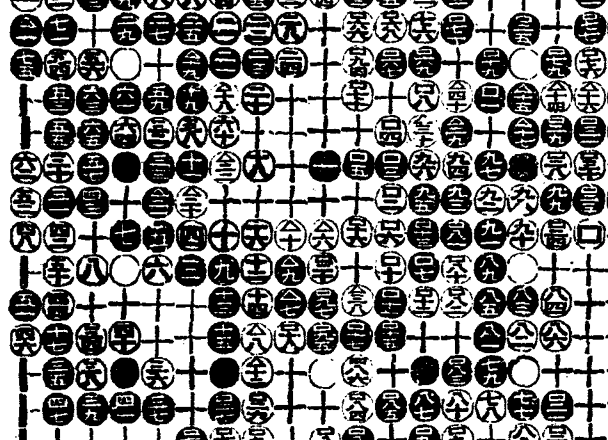
八月卅一日(金曜)

第二放送 (波長四九二米)
◇午後〇時五分 俗謠 一、愁心歌와역금 二、孔明歌 三、寧邊歌 四、景福宮打鈴 五、開城雜遊歌 六、漢江水打鈴 高一心
◇同二時 家庭講座 犯罪와家庭(一) 尹聖相
◇同六時三〇分 童話 딕크少年의고양이、林炳裕
◇同六時五五分 라디오學校 讀書期를마지하며(二) 延禧敎授 鄭寅燮
◇同八時 夏期特別講座 性格의心理 (五) 中央佛專敎授 金斗憲
◇同八時三〇分 라디오 드라마 詞맛는慈愛 全一景 라디오플레이·미-팅
◇同九時 歌詞 一、春眠曲 二、乾坤歌 鄭彩紅 安鶴仙 萬冬 金永根
◇同九時三〇分 (東) 時報
◇同九時三一分 唱劇調 一、短歌 天下泰平 二、唱劇說沈淸歌 宋萬甲 鼓手 池龍九
◇同一〇時 뉴-스 氣象通報 翌日프로그람發表 뉴-스再放送

◇本社主催◇ 國手選拔 圍碁對局譜 (十八)

略符=〈口百△-二百-◎三百〉

白 盧史楚
黑先 丁奎春



(●三二一)辰의十二(○三二二)寅의十(●三二三)壬의五(○三二四)癸의五
(●三二五)卯의一(○三二六)辰의一(●三二七)戊의一(○三二八)乙의二
(●三二九)己의九(○三三〇)庚의九(●三三一)甲의四(○三三二)甲의三
(●三三三)寅의十九(○三三四)甲의五(●三三五)甲의六(○三三六)丁의一
(●三三七)己의一(○三三八)壬의十四(●三三九)辛의三(○三四〇)己의八

◇死點 (●二四五)申의十三(●二九九)申의十四(●二〇九)壬의十三
(●六七)辰의四(●一三三)卯의四(●一五五)寅의四

◇劫點 (○一五二)丑의四(○二一四)壬의十四(●二〇五)壬의十三

故鄕 (234)

李箕永 作
安夕影 畵

희생(犧牲) 二

희순이는 옥희가 진정으로못는것가튼 태도를 보고나서비로소、이야기를 시작하엿다。그동안에 민판서 집에서는간평할 타작관이 나려와서보고 원악 수제가 심한데 동정하여서 그는 웬만하면、작인들이 억울하지 안토록잘해주자는것을、한승학은 그러치안타고、그사람을 살살꾀이고、치사대접하는바람에、사음이하자는 대로 따라갓다는말과、안승학이가그와가티 려섭한리류는올일년만 그러케 해준다면、별로 큰관계가업겟지만、한번그런전례를 내주게되면 그것이 낫분버릇이되여서 해마다그런일이 생기면、큰일이아니냐고、어뜻드르면 누구나 그럼상십푸게 살며땐것이라고、ㅡ그래、자긔가 식히는대로 벼를비고、순종할것가트면、타작마당에서 상당하게 감해줄수도 잇겟지만 만일、이와가치、주저넘게 대항을하고나선다면、그것은 한톨노 안감해줄터이니、그리알라는 말과 아울너、지금까지 지나온경과의 전후사연을 사실대로 저저히 말하엿다。

희순이는 흥분이 되여서 긴장한 목소리로、

『그러나、낫분 전례를 짓는다니、그러키로 말하면、피차 일반이 안인가요?ㅡ올과가튼 흉년에、소작료를 감해주지안는다면、올버럼더한 흉년이 드러도 감해주지못하겟다는 전례를 짓자는말이안인가요、우리는 조곰도 무리한 청구를 하지안는데도 아버님께서는 너무 심하신것 가태요!ㅡ참、뭐한말로、보는데가업시다른사람이 그런짓을 한다면、래일은 엇지되엿든지간에 열나는대로 다드려보앗겟서요』

희순이는 공분이 끄러올너서、숨을 모라쉬엿다。옥희는 가만히 안저서 듯고잇다가、옷깃을 바로엽의며

『우리아버지라는이가 족히그럴것이여요。그는 리욕이나 지위나、자긔명예를 위해서는、처자도모르고、친구간의리도모르는이에요。돈을위하야서는、무슨짓이라도하는 비렬한 성격을 가젓서요……그러기에、저도이러케 집을나온것이 안이여요!ㅡ』

옥희는 다시금 코가 메고 눈물이 괴엿다。그는 원통이 부들부들떨니엇다。마치그것은 부친의 죄악을、자긔가 대신 심판을 밧는것과가튼、쓰라린 가책(苛責)을 늣기엿다。

『그러케 말슴하시니、나도괴탄업는 말슴하겟슴니다마는 글세 지주집사람까지、감해주자는것을、당신이 고집을 부릴필요가무엇인가요? 그러케한다고、지주에게서 별안간 더만히 생길것도 안인데……』

『그이는 원래 그런성미를 가젓서요、한번작정한것은 끗까지 자긔주장대로 하고십허하는걸요……뭐!!아!죄를저도 자긔집식구에게나질일이지、엇저자고、애매한남들까지、복을가요?그는인제 그법억울알뜰이 바들것이야요ㅡ아니、벌서부터 밧고잇는셈이지요……흠……저의 사남매가 모두 각배가 안입니가!지금것에 동생하나 아버지의 귀엽을 밧지마는 다른 동생들과는 의가낫서요。동생뿐 아니라왼집안 식구하고、모두의가낫지요……오직 쟈근어머니란이가、아버지의 비위를마추고잇는체하지마는 그것은웬걸、정말로 위하는것인가요?지금은 돈이잇스닛가 암낭암냥하면서 자긔난 아들을위해서、실속을차려주라고그라는데요! 그런두가잇서요!저도 집을나왓지만 다른 동생들도 부터 잇슬숩아니요、지금은 학교를 단이닛가、그저 꾹참고 잇지만……어머니도 기애들만업스면、벌서 다러낫슬터인데요……그러면、늙은말년에 무슨꼴이 되겟서요……그래도、제집안 사람에게 죄를 짓는것은 오히려용하여요。그것은、서로절연이잇고、세상에는 그런사람이 만흐닛가……그러나 남에게 적악을 하는사람은ㅡ용서치못할 죄악의씨도、태여난사람이여요、아!저는왜、그런이의 자식으로 태여낫슬가요……』

옥희는 부친을 원망하는남어지에、서름이 북바첫다。그는 그런부친을 가진것이、희순이압헤서、얼굴을 못들도록 붓그러웟다。

三南水害義捐金品

現金累計 二萬五千五百二十四圓六十九錢

物品累計 六萬七千二十五點

一金三十一圓五十九錢 同德女子普通學校職員生徒一同

一金十三圓三十六錢 牙山郡屯浦面市浦里 振興會員一同

一金十五圓 全北井邑 中華商務部

一金十個 城津邑 慶尙親睦會會員一同

一金十圓 城津邑 開城鄉友親睦會會員一同

一金六圓二十一錢 衣類及靴三十五點 太平通二丁目二九八 壬戌學術講習會晝夜學生徒一同

東洋商事社外交員一同
一金二圓六十錢

內譯 一圓 尹玘柱 五十錢 具然表 五十錢 兪完基 三十錢 李東國 二十錢 尹炳淑 十錢 金永和

新義州飲食店組合
一金七圓四十錢

內譯 二圓 金有達 一圓 洪錫福 一圓 金亨淑 五十錢 金棟瀅 五十錢 鄭濟善 五十錢 辛鳳順 五十錢 朴錦仙 三十錢 劉正煥 三十錢 池在舜 三十錢 洪春子 三十錢 金春德 二十錢 崔永珍

新義州警察署傭人一同
一金二圓九十九錢

內譯 李允福 鄭鳳瑞 元世潤 金德祚 黃瑞允 元慧明 車範九

阪鮮殖產組合取扱分
大阪市旭區鴨野町 一金六十一圓六十錢

內譯 二圓 尹萬祚 二圓 金容植 一圓二十錢 金漢植 五十錢 朴吉相 五十錢 金永洙 五十錢 千命晉 五十錢 金田中 五十錢 趙輔鉉 五十錢 金洛準 五十錢 白南吉 五十錢 裵昌奎 五十錢 朴鶴伊 五十錢 兪英植 五十錢 尹守京 五十錢 李致雨 五十錢 片德守 五十錢 李廷基 五十錢 金河俊 五十錢 金宗錫 五十錢 文漢吉 五十錢 金且巖 五十錢 金文斗 五十錢 李炳駿 五十錢 金基泰 五十錢 兪昌石 五十錢 金檜鎬 三十錢 玄翔集 三十錢 諸泰訓 三十錢 金顯局 二十錢 金道萬 二十錢 李景中 一圓 張慶喜 一圓 洪鍾仁

五十錢 姜達老 五十錢 鄭錫基 五十錢 金再權 五十錢 金次巖 一圓 明石嘉吉 五十錢 兪丙山 五十錢 徐相童 五十錢 李述伊 五十錢 李福萬 五十錢 李澤秀 五十錢 愼鶴根 三十錢 申鉉鎔 五十錢 全東煥 五十錢 金敬文 五十錢 李恭弼 三十錢 趙聖辰 三十五錢 河永運 二十錢 西門東 二十錢 金正基 十錢 洪東植 五十錢 李海祚 二十錢 金水連 五十錢 金東洙 三十錢 朴鳳洙 二圓 朴燦軫 一圓 全炳學 一圓 白道基 五十錢 韓五福 五十錢 崔炳台 五十錢 朴壽男 五十錢 李斗和 五十錢 金順執 五十錢 尹炳浩

五十錢 白南準 五十錢 安命述 五十錢 崔尙九 五十錢 朴學俊 五十錢 辛乙奎 五十錢 許好 五十錢 林源東 五十錢 裵桂贇 五十錢 李時雨 五十錢 丁千燮 五十錢 權丙九 五十錢 李馬成 五十錢 鄭用達 五十錢 李承平 五十錢 金鍾碩 五十錢 姜錦秀 五十錢 黃國洪 三十錢 趙鏞漢 三十錢 金載文 三十錢 曺軫煥 三十錢 朴唱守 三十錢 朱應俊 三十錢 崔順祚 三十錢 黃次洪 三十錢 河成祿 三十錢 柳昌奉 二十錢 金洪滿 二十錢 徐敬和 二十錢 金東鑽

二十錢 金八文 二十錢 洪順讚 二十錢 金龍大 二十錢 金松局 二十錢 金七圭 二十錢 李正基 二十錢 金成彬 二十錢 梁德龍 二十錢 孫道景 二十錢 洪七龍 十五錢 吳泰柄 一圓 金龍基 一圓 金龍文 一圓 車宗述 一圓 金巨福 五十錢 尹五鉉 五十錢 金大奎 五十錢 張度煥 五十錢 金甲祚 五十錢 金振玉 五十錢 崔秀德 五十錢 鄭泰元 五十錢 金巖回 五十錢 崔天興 五十錢 金碩元 五十錢 吉田萬 二十錢 許水亭 二十錢 郭仲坤 三十錢 朴寶巖

槿友少年會員一同
延白郡海月面環城里 一金一圓八十錢

內譯 十五錢 李承明 十錢 李萬相 二十五錢 李承權 十五錢 李虎相 十錢 李炳㘓 十錢 李炳元 十錢 李炳基 十錢 李涍根 十錢 李周參 十五錢 李泳相 十錢 李國宰 十錢 奉弼成 十錢 鄭昌淳 十錢 朴泳贇 十錢 李駿宰

本社洪川支局經由分
一金四十四圓九十六錢 (音樂會費用除外)

內譯 四十四圓九十六錢 音樂會收入 一圓五十錢 張逸奎 一圓 洪信商店 一圓 李箕俊 一圓 金永完 一圓 黃漢圭 一圓 李鍾春 一圓 南俊根 一圓 許麟煥 五十錢 李慶儀 五十錢 金元奎 五十錢 李應百 五十錢 盧致杰 五十錢 方勳載 五十錢 全慶福 五十錢 全福樓 一圓 全四龍 一圓 金乙成 一圓 李敬道

啓愛相互協會
京都市伏見區深草西川原町七 一金七十圓

內譯 三圓三十錢 土居顯 一圓 朴鴻祚 二圓 金景用 二圓 崔洛弼 一圓 安鍾驥 一圓 趙鳳奎 六圓 吳龍術 二圓 林又玉 一圓五十錢 禹問律 一圓五十錢 吳甲術 一圓 金相善 一圓 李京出 一圓 蔡今錫 一圓 李壽生 一圓 金泰用 一圓 趙鳳濟 一圓 洪基敬 一圓 宋義甲 五十錢 裵聖順 五十錢 李判錫 五十錢 李相大 五十錢 崔良穆 五十錢 李周七 五十錢 吳介同 五十錢 許三萬 五十錢 禹雙律 五十錢 吳壬術

五十錢 金應用 五十錢 朴斗柄 一圓 鄭鍾洙 五十錢 文桂道 五十錢 蔡奎俊 五十錢 趙鏞浩 五十錢 方相文 五十錢 徐小甲 五十錢 金水英 一圓 金尙圭 五十錢 朴柱賢 五十錢 金元甲 五十錢 姜斗完 五十錢 朴允成 一圓 金甲術 五十錢 李福成 五十錢 崔斗之 五十錢 崔命順 五十錢 金石文 五十錢 李丙鶴 五十錢 張在云 五十錢 崔基壽 五十錢 金炯駿 五十錢 李八守 一圓 李季成 五十錢 崔洛龍 五十錢 宋大權

五十錢 金三美 五十錢 李俊鉉 五十錢 崔丁浩 五十錢 金容秀 一圓 崔錫仁 五十錢 許萬業 五十錢 李有吉 五十錢 安雙中 一圓 廣瀨米屋 五十錢 李丁甲 五十錢 趙末秀 五十錢 金又章 五十錢 趙英珍 五十錢 姜一會 一圓 李相善 二十錢 鄭守萬 五圓 金二圭 一圓 金基連 五十錢 尹鶴鳳 一圓 寺村忠一 五十錢 李泰壽 五十錢 李允点 一圓 吳根鳳 五十錢 金陶奎 五十錢 劉大錫 五十錢 金在完 五十錢 安相哲

本社富居販賣所經由分
一金五圓四十錢

內譯 五圓 富居公立普通校 同窓會 十錢 張瑋杓 十錢 朴昌濬 十錢 朴鎰濬 十錢 朴秉千

近友會取扱
大阪市西淀川區海老江下二丁目七二 一金二十三圓五十錢

內譯 一圓 文琪執 一圓 權永奇 一圓 崔憲植 一圓 文奇八 一圓 朴慶德 一圓 河士中 一圓 尹暻鉉 五十錢 李教春 五十錢 申文伊 五十錢 金南國 五十錢 河載珍 五十錢 李道成 五十錢 李元基 五十錢 金龍鉉 五十錢 羅仁弘 五十錢 鄭晚秀 五十錢 黃晦鄕 五十錢 金東喆 五十錢 可燮鎭 五十錢 韓德文 五十錢 宋榮漢 五十錢 朴春伯 五十錢 金哲鍾 五十錢 梁敬七 五十錢 權赫宰 五十錢 申容圭 五十錢 權炳基 五十錢 朴球東 五十錢 朱澈玉 五十錢 李鳳祐 五十錢 申鍾圭 五十錢 梁秀鏡 五十錢 鄭絃國 五十錢 吳德守 五十錢 金水福 五十錢 金允相 五十錢 崔敬祚 三十錢 宋生九 三十錢 金龍判 三十錢 李方九 二十錢 宋榮周 二十錢 朴永珍

神溪寺僧侶一同
江原道外金剛 一金二十一圓九十六錢

內譯 一、神溪寺僧侶秩 七圓 神溪寺寺中 一圓 住持 高坦翁 二圓 金東宦 一圓 李月河 一圓 崔高峯 一圓 李心空 一圓 林大願 五十錢 宣日峯 五十錢 河震宇 三十錢 李石潭 三十錢 陳龍山 三十錢 金曙明 三十錢 文蓮宇 三十錢 文殊庵中 三十錢 高月波 三十錢 金混凝 三十錢 金炯祚 二十錢 [illegible] 二十錢 金大虛 二十錢 張慧潭 二十錢 金興福 二十錢 朴昌萬 二十錢 黃運河 二十錢 金萬燮 十錢 宋錦峯 十錢 安坦岩 十錢 白泰順 十錢 安蓮峯 十錢 金龍潭 十錢 洪法安 十錢 無名氏

二、倉岱里及助伊秩 五十錢 金二龍 三十錢 黃顯鎭 三十錢 李承八 [illegible] 趙德吉 [illegible] [illegible]聖仲 二十錢 柳泰守 十錢 張明學 十錢 崔昌云 十錢 李守榮 十錢 成昌鎬 十錢 林昌載 十錢 朴漢吾 六錢 金虞鎭

神興寺僧侶一同
江原道[illegible]通川郡 一金十六圓

內譯 五圓 神興寺 金壽永 二圓 神興寺宗務所 二圓 徐漢植 一圓 崔觀洙 一圓 黃龜岩 一圓 李景月 五十錢 芮昌洽 五十錢 禹世烈 四十錢 趙是三 三十錢 李惺庵 三十錢 朴性三 二十錢 鄭鎭守 二十錢 金啓日 二十錢 李大德 二十錢 金正昕 二十錢 李文日 五十錢 姜晴海 五十錢 洪興雲

本社全州支局經由分
一金十九圓十錢 衣類四十七點

內譯 一圓 申鉉彰 二十錢 崔東權 三十錢 趙昌善 十錢 李卓 二十錢 姜周贇 二十錢 林奉烈 二十錢 朴勝勳 三十錢 李相信 二十錢 吳益鎭 五十錢 李東默 二十錢 鄭學淳 十錢 申光鉉 十錢 申光日 五十錢 金成吉 十錢 李永完 一圓 吳興七 一圓 吳東熙 二十錢 吳公西 二十錢 宋秉河 一圓 吳宗熙 十錢 高在文 十錢 韓道奉 三十錢 朴魯相 一圓 李姓女 五十錢 吳乃喜 五十錢 朴珍圭 九錢 黃吉東

九錢 金萬洙 五錢 全承化 十錢 李奉先 三十錢 吳元喜 五錢 朴漢斗 九錢 宋金石 二十七錢 咸玉順 三錢 金姓女 五錢 申九萬 五圓三十八錢 陳海英 五十錢 金日九 中央敎會女子助力會 三點 李相信 三點 金恩惠 一點 崔東權 二點 姜周贇 一點 李卓 一點 姜永根 二點 申鉉彰 一點 李泰信 三點 高明德 八點 李東默 二點 朴長傳 一點 郭泰勳 七點 趙昌善 二點 鄭在錫 海東亭十疋 李仁基商店

本社平澤支局經由分 (第三回)
一金四圓六十九錢

內譯 元谷里洞農村振興會 六十錢 趙炳殷 五十錢 趙麟行 五十錢 趙炳璇 三十錢 趙炳稷 三十錢 趙龍行 二十錢 趙炳甲 十錢 柳炳玉 十錢 趙寬元 五錢 趙寧元 二十錢 朴俊培 二十錢 趙萬元 十錢 趙敏行 十錢 李今鳳 五錢 趙炳鎬 五錢 朴時來 五錢 趙範行

元谷里青年會員 四十二錢 趙顯行 十二錢 朴永培 十二錢 韓用錫 十五錢 趙文行 十二錢 趙炳根 十二錢 趙驊行 十二錢 趙炳星 十二錢 朴慶來

本社寶城支局經由分
一金十二圓九十錢

內譯 三圓 林樑珉 一圓 崔相潤 一圓 孫正來 一圓 金永暾 五十錢 金文海 五十錢 金扃彥 五十錢 李甫順 五十錢 靑圭蜂 五十錢 金宇植 五十錢 張基喆 五十錢 康世斗 五十錢 申哲淳 三十錢 任泳學 三十錢 崔聖悅 三十錢 金用顔 二圓 本社寶城支局

本社北栗分局經由分
一金八十九圓六十六錢

內譯 五十錢 崔秉鏞 一圓 崔秉爀 一圓 崔炳煥

一圓 宋殷益 三十錢 李享浩 三十錢 高昌煥 三十錢 洪海豊 三十錢 金景華 三十錢 崔成祐 三十錢 李桂弘 三十錢 李斗煥 三十錢 張道淳 三十錢 林致善 三十錢 宋振擧 三十錢 宋文益 十錢 朴永贇 十錢 姜漢淳 十錢 金正贇 四十錢 黃斗永 二十五錢 金東曦 三十錢 金景浩 三十錢 金奭奎 二十錢 崔秉玉 二十五錢 林基萬 三十錢 金光洙 六十錢 魯應淳 五十錢 金應用 五十錢 李亨淳 二十錢 崔丙淳 二十錢 金永化 二十錢 尹夏鎭 二十錢 周基昌 二十錢 崔丙善 二十錢 魯良善 二十錢 姜俊煥 一圓 柳義赫 三十錢 金道善 三十錢 具永書 三十錢 張善命 二十錢 吳澤一 二十錢 洪鍾一 二十錢 安亨瓚 二十錢 金成九 二十錢 金道淳 十五錢 金道根 十五錢 洪宗烈 十五錢 李時俊 十五錢 金正尙 十五錢 文福順 十五錢 林千石 十錢 朴芝漢 十錢 李晃植 十錢 金成麗 十錢 金德弼 十錢 梁奉俊 十錢 金明益 十錢 李倘雲 十錢 金元基 十錢 羅仲業 五錢 金倘用 五錢 李應錫 六十六錢 朴龍雲 十一錢 林成喆 三十三錢 金連洙 二十二錢 金桂澤 四十四錢 張載仁 八錢 金京善 十六錢 金用漸 二十四錢 金基淵 七錢 林學權 六十錢 鄭豊植 四十錢 任基浩 四十錢 朴永善 四十錢 李淳亨 三十錢 柳種善 三十錢 安景一 三十錢 金明龍 三十錢 金乃錫 三十錢 金成道 三十錢 金漢鳳 二十錢 尹鼎烈 二十錢 鄭秉烈 二十錢 李載城 二十錢 宋啓奭

二十錢 安利植 二十錢 林德均 二十錢 安近植 二十錢 姜雲善 二十錢 宋成默 二十錢 李根成 二十錢 李淳煥 二十錢 姜根亨 二十錢 姜根良 二十錢 宋鳳來 二十錢 李昌俊 十錢 安建奎 十錢 金秉鉉 十錢 崔子煥 十錢 金順錫 十錢 安景律 十錢 林成均 十錢 魯東赫 十錢 朴宗燁 十錢 安明植 十錢 李良善 十錢 李桂善 十錢 鄭漢錫 十錢 安奎植 十錢 金昌洙 十錢 宋基俊 十錢 崔龍晟 十錢 崔正燮 十錢 洪淳泳 十錢 朴永辰 十錢 金寬浩 十錢 廉承祿 十錢 李東烈 十錢 元良喜 十錢 李昌煥 十錢 朴德煥 十錢 李元泰 十五錢 金基昌 十錢 韓潤敎 十錢 崔春善 十錢 黃麗鍾 二十錢 鄭令謙 十錢 趙永俊 十錢 鄭漢七 十錢 金永哲 十錢 白殷喆 十錢 閔行國 十錢 金振永 二十錢 朴元武 十五錢 黃澤坤 十五錢 鄭昌文 十五錢 張恒植 十五錢 金倘赫 十五錢 金俊喆 十五錢 金倘賢 十五錢 鄭宗南 十五錢 金鳳俊 十五錢 鄭宗鄹 十五錢 金振聲 十五錢 安聖鳳 十錢 申承均 十錢 池寬洙 十錢 趙根元 十錢 洪鍾德 十錢 張志翰 十錢 趙匡稷 二十錢 朴秉煥 十錢 梁斗先 十錢 李萬實 二十錢 鄭宗鄖 十錢 李萬亭 十錢 宋世鎭 十錢 洪錫俊 十一錢 金應善 十錢 青昌周 二十錢 張應俊 十錢 金昌化 十錢 朴敦瑞 二十錢 鄭漢龍 十錢 邦弼煥 十錢 金昌元 十錢 元德戈

十錢 洪根[illegible] 二十錢 韓善[illegible] 十五錢 鄭泰燮 十一錢 羅振文 十錢 鄭昌萬 十一錢 李根成 十一錢 鄭將軍 十一錢 崔孝善 十錢 鄭漢玉 五錢 朴尙玉 五錢 金儀永 十錢 金贊玉 五錢 金河碧 十五錢 金士彬 十五錢 李淳源 十錢 崔致三 五錢 金振祚 五錢 李豪憲 三十錢 韓俊益 十五錢 李健瀅 二十錢 白在鎬 五錢 金元秋 二十錢 李約悉 十錢 安應善 五錢 崔德植 十錢 洪春茂 十五錢 尹昌信 四十錢 朴尙奎 二十錢 張元福 五錢 趙京浩 三十錢 白在學 十五錢 宋奉極 五錢 趙元浩 五十錢 崔濟弘 五十錢 羅錫龜 五十錢 金在涉 五十錢 黃鍾允 四十錢 康士玄 三十錢 李昌龍 三十錢 金姿明 三十錢 金永基 三十錢 金成蓮 三十錢 金仁容 三十錢 盧正洙 三十錢 金瑞庚 三十錢 金應浩 二十錢 崔寬俊 二十錢 鄭道斌 二十錢 李益龍 二十錢 崔永俊 二十錢 鄭貞贊 二十錢 閔永贊 二十錢 全乾鎬 二十錢 張濟和 二十錢 金斗煥 二十錢 奇昌道 二十錢 宋陽得 二十錢 林學官 二十錢 申鳳華 二十錢 金慶燮 二十錢 洪淳京 二十錢 鄭達鴻 二十錢 朴興培 二十錢 金贊奎 二十錢 洪秉淵 二十錢 李德龍 二十錢 金永淑 二十錢 黃昌烈 二十錢 金鼎涉 二十錢 金履涉 二十錢 金冕淳 二十錢 咸鍾哲 二十錢 趙承元 二十錢 韓源敎 二十錢 金用寬 二十錢 韓燦敎 二十錢 林秉雲 二十錢 金億斗 二十錢 崔在煥 二十錢 林尙根 三十錢 洪秉權 三十錢 李成勳

十錢 洪炳浩 十錢 洪能煥 十錢 崔春培 十錢 金善默 十錢 白雲植 二十錢 朴東奎 十錢 莊昌培 二十錢 宋奉周 二十錢 李濟元 二十錢 金振河 二十錢 崔宗煥 二十錢 方台燮 十錢 洪順逸 十錢 宋允瑞 十錢 宋奉夏 十錢 鄭國權 十錢 朴用漢 二十錢 洪基煥 二十錢 宋玄福 十錢 金尙國 十錢 朴亨植 十錢 金斗勳 二十錢 崔濟濬 二十錢 鄭得坤 三十錢 金尙任 三十錢 宋致浩 二七錢 安昌濂 十錢 宋致坤 十錢 金億石 十錢 崔炳俊 十錢 崔萬權 十錢 朴尙順 十錢 金貞奎 十錢 宋奎淋 十錢 韓昌穆 四十錢 朴孝均 一圓五十錢 魯興淳 一圓 朴鍾煥 五十錢 申乃勳 五十錢 金基模 五十錢 吳義龍 二十錢 吳辰乾 五十錢 吳濟國 三十錢 安景大 三十錢 吳秉燁 三十錢 趙鳳國 二十錢 林明燮 二十錢 安寬益 二十錢 李學明 二十錢 李希淳 二十錢 吳東謙 二十錢 魯乃沈 四十錢 申龍彬 二十錢 安應五 二十錢 羅濟鉉 二十錢 崔致俊 二十錢 李福善 五十錢 吳仁洛 一圓 安貞淵 一圓 黃斗南 一圓 崔吉鉉 五十錢 李尙玉 五十錢 崔基俊 五十錢 金東植 五十錢 崔禮黠 五十錢 金膺榕 五十錢 崔基厚 四十錢 莊元夏 四十錢 明乃善 四十錢 申承默 三十錢 吳基賢 三十錢 崔柱順 三十錢 崔東燮 三十錢 崔尙奎 三十錢 崔致祥 三十錢 崔東權 三十錢 李光秀 二十錢 鄭澤祚 二十錢 玄仁國

二十錢 裵元植 二十錢 金應文 二十錢 崔熙赫 二十錢 朴興祿 二十錢 李寶元 二十錢 崔東淑 二十錢 林安息 二十錢 金成玉 二十錢 金達淳 二十錢 金學默 二十錢 洪秉瑞 二十錢 金昌熙 二十錢 崔俊奎 二十錢 尹鼎煥 三十錢 崔益善 一圓 李豪濟 五十錢 韓國良 五十錢 千甫鉉 五十錢 宋鳳淳 三十錢 李奎元 三十錢 朴承武 二十錢 趙春元 二十錢 洪鍾憶 二十錢 金濟元 二十錢 金汝一 二十錢 吳良俊 二十錢 洪明永 二十錢 金京浩 二十錢 鄭永基 二十錢 申斗月 二十錢 李寅秀 二十錢 姜益祚 二十錢 金處文 二十錢 金永善 二十錢 金永祚 二十錢 金禮善 二十錢 李在勳 二十錢 金昌淳 二十錢 金景浩 二十錢 金鉉植 二十錢 鄭履化 十錢 魯炳明 十錢 崔應律 十錢 宋濟默 十錢 金基文 十錢 張俊浩 十錢 朴淳默 十錢 吳永洙 十錢 韓益信 十錢 金鎔濟 十錢 金義贊 十錢 吳鎭良 十錢 韓尙奎 十錢 金炳洙 十錢 李承燁 十錢 金光鉉 十錢 姜漢折 十錢 千仲鉉 十錢 林亨均 十錢 朴濟善 十錢 林永均 十錢 李根源 十錢 郭昌奎 十錢 孫昌俊 十錢 千德鉉 十錢 林澤均 十錢 申昌瑞 十錢 柳秉植 十錢 金秉喆 十錢 閔秉煥 十錢 金鳳用 三十錢 韓致寬 五十錢 丁信誠 三十錢 金泰奎 二十錢 李應鎬 十錢 崔寬業 三十錢 洪健億 十錢 安光產

現金小計 四百七十圓七十二錢

物品小計 八十二點

水災에우는同胞에 幅湊하는同情의涙

公休日에作業 全收入을救濟에
咸興府理髮組合義擧

【咸興】 각지에서 뜨거운 수재구제금품이 답지한다함은 루보되는바어니와 함흥부내 이십여리발관을 포용한 리발조합에서도 오는구월삼일은 공휴일인데 그날여전히 종업하여수입전체를 재지에보내랴고 삐라등을 산포하엿다는데 일반은 그들의 륙지에 찬의를 표하는동시에 이날을 리용하기를 바란다고한다

水災同胞를 『석양』팔어同情
下北青年熱誠

【梁山】 삼남천지를뒤집을듯한지난대홍수에 의식주를 모다 물에일코 먹을것이업다 입을것이업다는 부르지즘을드른 경남양산군하북면신평(下北面新坪)의청년 김정대(金正大)、최을한(洪乙漢)외삼십여명은 천지를 녹일듯한 더위도무릅쓰고 험준한 산도와 협착한들길를 도라다니며 한동에일이전의리익을 보든 석양장사를하야 모흔돈 삼십사원륙십구전을 본보양산지국에 탁송하엿슴으로 지방인사들은 그또그운 동족애에 찬양이놉다

高等里夜學生의 눈물서긴義捐
本社支局에寄託

【水原】 삼남수해리재동포에게 전달될의리하여 삼천리방방곡곡에서 무언의약속아래 모혀드는 의연금품중에는 가지가지 눈물겨운에피소ー드가전하여지는바 수원군일형면고등리(水原郡日荊面高等里)에잇는사설학술강습소(私設學術講習所)야학생일동은 일전이전식 거두어 모아 현금 일원오십이전과의복 십칠점을 모도아가지고 이십륙일 본사수원지국을 차저와서본사에기탁을 의뢰하고갓는데 비록 약소하나마 그들어린가슴에서울어난 어정성의 선물을바들 리재동포의 깃븜을 생각할제지국원은무량한감개를금할수업섯다

罹災民爲하야 一朔契員同情

【新昌】 함남신창항간인생각계에서는 삼남지방수재로 비참한 처지를당하고잇는 동포를위하야 재원이십여명은 그들에게 다소의 물질이라도 정성것드리랴고 자긔들의매삭월인 이십전의 계금을전부모으고 또그중에 사오인은 자긔에게잇는것을 다려려 합오원이십전을 본보신창지국에 긔탁하엿는데 어린사람들의 감격로써이가려 한은참으로 아름다운일이라하야 일반의 칭찬이자자하다

康津禮拜堂의 誠意잇는同情

【康津】 금번삼남대수해로인하야 구조를 부르짓고잇는 수십만의 리재동포를위하야 곳곳마다 동족애에 타오르는 불가든마음은 누구나 맛찬가지일 것이다 강진장로교회에서는 일반신도들이 타오르는 동족애에 너도나도 할것업시 구제금품을 수합하야 이십칠일 교회대표로 전도사 원유혁(元裕赫)씨 명의로 본보강진지국에 삼남리재동포에게 보내여달라고 긔탁하엿슴으로 본지국에서는 즉시본사에 송부하엿다

野遊會를中止 三南災民救濟

【城津】 삼남지방수재동포구제열은 점차백열화하여저서 본사성진지국에는 무[...]하는중인데 성진읍부인친목회(婦人親睦會)와개성향우친목회(開城鄕友親睦會)에서는 매번하계이면 회원의 친목을도모하기 위하야 야유회를 하든것도 중지하고그 경비로 각각십원식 본사성진지국에 긔탁하엿는데 지국에서는 이십팔일에 본사로송금하엿다고한다

西門外敎會의 衣類三十三點

【全州】 전주서문외례배당에서는 삼남수재리재민을 위하야 의복삼십삼점을 본보전주지국에긔탁하엿다

元山天主敎會의 衣類四百八點
戶別訪問募集하야 本社支局에寄附

【元山】 삼남수해리재민동구하자는 작열(灼熱)된 동족애의 발로는 전선적으로 최고조에달하라하는 이때 원산천주교신자중에서는 이참상을 다소나마구하자는 적성으로 장안나、리안나、바마리아、바안나、바말신야、조마리아、리안나외몃명이 주동이되여 각신자의집을 순방하야 의류사백팔점과 현금륙십전을 모아서 본보원산지국에 긔탁하며 수만흔리재민에게 전달하야 달라고하얏다

安州少年은 優勝賞全部를
本社支局에寄託

【安州】 안주소년신천단(安州少年新川團)은 거금삼년전에 십륙세미만의 소년들로서 조직된소년친목과 운동단체로서 단장김병오(金秉梧)군의통제로현재단원이 약사십명에 달하는데 지난십팔일에 신안주 소년단과 축구경기를하야 우승한 상품전부내복칠건과 단원 각기출연한 [...]수재구[...] 내달라고 이십륙일 [...]국에긔탁하얏다

針線으로번 現金과衣類
元山婦女史의義擧

【元山】 바누질삭전으로그날그날을 살아가는 잘록한생활을 하면서도 자긔가입어야할 의복 넘정과 사야할것을 안사고수머니속에서 사십전을 얼어내여가지고 본보원산지국에와서 비록 적은돈이고 입엇든옷이나마 이것을 삼남리재민에게 보내주기 바란다고한녀사가잇섯다 그는 원산부명석동이백사십번지정상순(鄭三順)(元)(일년정엘이엿)녀사로 그는어릴적부터 청주교를미덧고 일찍이 신앙심이두터운만흠 남달은 인정과박애심을 가지고잇섯다는바낫지면바누질품팔이를하고 밤이면 문맹에헤매는부녀를 가정으로 방문하며 교수하야온조선말보사하고문자보급반원으로 활동한바 이정녀사의 동정금품이야말로 적성의결정에서울어나온선금입것이다

여성婦人活動 米一石돈六圓
善山支局에寄託

【善山】 금번삼남지방의참담한수해의보도를들은울산읍정금숙(鄭銀淑)김송만(金松萬)오한수(吳瑗壽)장말순(張末順)리정숙(李貞淑)여금도(余今道)동여섯부인은모다삼남리재사의게조금도 여가가업슴에 불구하고 수난동포의 정상을남의일가리 생각지안코서로 의론한결과 어린아이를업고 품품이호별방문을하야 방금먹는량식중으로 백미 오두사승 보리쌀오두팔승 현금륙원칠십오전을 모집한후 눈물겨운말로서 본보울산지국을 통하야재지에 보내달라고 청탁하엿는바 일반은 그들의독지를 찬양하야 마지안는다고한다

[...]저잇는동포의 구제에 보태여에 달라고간곡히 부탁하엿는데 총무산아동들의 정성스러운 행동을일반은 칭송하야 마지안는다한다

琿春支局經由 同情金品遝至

【琿春】 본보훈춘지국에서는 [...]동들의가특한정성을감사한다고한다

그사이 지국장의출타로 인하야 삼남수재 동정금모집에 착수못하엿던바 지난이십사일 부터모집에착수하엿는데성적이양호하다고한다

三南水災同情 演奏 音樂 의 밤
善山支局主催

九月三日龜尾에서

【善山】 공전의수해로수만의 리재민은 의식주를일코 그들의 전도가 막연하야각방면의 정성엇는동포에게 울어나는 구제의 손도끈허지고 더욱 품으로 연명해오든바 지금은 그구제의 손도끈허지고 더욱 생도가막연함을보고 절실히늣긴바잇는본보선산지국에서는구미동우회(龜尾同友會)의 후원으로 오는구월삼일부터 이일간 제일좌에서 삼남수해 구제연극을개연하기로되여 주최측 에서는방금그준비에분망중인바 특히숨은선악가주인파(朱銀波)씨의독창도잇스리라하야만도의인긔는 비등하고잇스며 예제와출연자제씨는다음과갓다

◇賛助出演者

▲活劇 貧寒한우리家庭 全五幕

▲社會劇 雨後의明月 全五幕

▲喜劇 바보의結婚生活 全一幕

▲喜劇 카페의하로밤 全二幕

▲喜劇 獨唱 寸劇 딴쓰等

金正泰 金承欽 黃泰遠 黃錫九 金敎高 曹璟錦 金圭卓 朴秉惠 金敎璜外數人

間島初有盛況의 水害救濟演奏
朝中朝鮮兩支局主催

【間島】 지난달십륙、칠량일간간도에서 흥행한 조선중앙과조선량지국주최의 삼남수재구제연주회에 출연하여준분의 씨명은 다음과갓고다한다

◇當夜出演者 ▲古樂園에서 金云玉、閔丙德、李長元、白完基、田氏 日乃出에서仙姬 惠山樓에서 春子、星州屋에서 南洙 海東樓에서 明月 米子、逢春閣에서 花仙、平壤館에서 嬋翠、飛鶯、香蘭 黃海館에錦香 楚仙、玉姬

延安에서도 救濟音樂盛況
延安支局後援

【延安】 긔보=연안류학생친목회주최와 본보연안 지국후원으로 지난이십사일 하오팔시삼십분부터 연안례배당에서 연안류학생 친목회창립 십오주년긔념경삼남수해 구제음악회를 게최한바 관중은정각전부터 인산인해를일우어 순서대로 대성황을일우엇스며 입장료금외의긔부자의방명은다음과갓다

申鉉龍五圓 張命昌 高性女 宋俊順 李五峯 東亞理髮館 사시와寫眞舘 愛彬寫眞館 朴容煥全雄鍾 金明善 徐京煥、金淸竹谷一圓 尹明善 趙鳳九各五十錢

◇午餐提供 八月十七日下午二時 日露食堂主□□□氏가當日會員三十餘人의 午餐을無料提供

[...]山、延安閣에서 林□□

慶山青年會主催 救濟映畵大會
本社支局後援

【慶山】 경북경산청년회에서는 당지소방조、각신문지국급본보경산지국 후원하에서 본월삼십일일삼십일량일간경산청년회관과및 자인공성산업조합 창고에서 수해구제영화대회를 개최코저 그간부일동은 이준비에자못분망중이라는바예상의성황을이루리라고 일반은 긔대한다

朝三暮四의方針 棉花統制反對—全南
木浦에서市民大會열고 各要路에反對陳情

【木浦】 작년구월에삼일전남도당국은면화증산(棉花增産)의 국책수립에 응하야 공장종별과 생산자의 리익증진을 도모한다는명목으로 면화공제성명서를 발표하야 도내에산재한 삼십칠개공장과 그에배치되여잇는 조면긔(繰綿機)칠백팔십칠대를무자비하게도 대부월을내리여 오회가 삼천만근출회할때까지 오개공장과 면긔오백대로 축소제한하야 전남도내에서 생산된면화가 삼천만근출회할때까지 오개공장에한하야 지정판매 하게하엿섯다 이지정판매 제도실시로인하야 다수의소공장은 전부희생이되엿슴으로 불시로 실업자가 수천명이생기여 소위물경긔란 파도가 목포에안흘부드치자 목포의번영은 지나간꿈이되고 전황의독소(毒素)를 참으로맛본목포시가는작년가을부러한산하기 짝이업섯다 그러나지정판매제도를 실시한지 일년이못되여 도당국은 자긔의발표한성명서를 자긔스사로 휴지로만들어버리고 비밀리에서 광주종방공장(光州鍾紡工場)에조면긔일백대 설치한공장을 신설하게하고 지정매수(指定買收)에 가입시키는 계획을 진행하엿다한다 이러케 조상모사하는 도당국의 면화공제방침을본 면화발상지(棉花發祥地)인 목포에서는 상공회의소가 주동이되여금번도당국의 방침은 면화판매동제의 역행(逆行)인동시 긔설지정공장경영(旣設指定工場經營)에대하야 위협과중압이된다하야 도당국에진정을 하엿든바 아무 회답이업서 도당국은 행정하게도 그진정을 거부함으로 주동이되엿든 상공회의소에서는 지난이십오일에 상공회의소를 토의한후 공직자회가주최가되여 시민대회를 개최하고철저적으로 반대운동을 맹렬히하기로하엿다 지난이십륙일밤에 목포평화관에서 시민대회를 열고 상공회의소 회두 촌상(村上)씨를비롯하야 십여명의 연사가 차례로 등단하야 도당국의무신한것을 여지업시 규탄한후반대진정서를 총독과정무총감을 위시하야 총독부 각관계국과장에 게면면히 진정서를 발송하기로 하엿다한다

新秋三人演奏會
卅一日夜於平高講堂 —本報支局後援—

【平壤】 평양이나은성악가한복덕(韓福德)양 양금가(洋琴家)김명애(金明愛)양 『첼로』합태환(咸泰煥)군의삼씨는평양연악회(硏樂會)주최와평양녀고보음악부(平壤女高音樂部)본사평양지국후원으로삼십일일오후팔시부터녀고보강당(女高普講堂)에서 신추삼인연주회(新秋三人演奏會)를개최키로 되엿는데회원권은 에이권(A券)오십전 삐권(B券)삼십전이라한다

◇寫眞……(上) 元山天主敎信者一同이 三南罹災民을爲하야 募集한同情衣類 (下)는盛況일운 善山支局主催의 救濟音樂會場光景

全南勞協事件 公判을又復延期
擔任判事의轉任으로

【光州】 치안유지법급출판법위반사건으로『재작년팔월상순에 광주지방법원 검사국으로부터 동법원예심에 회부되여일년 사개월만인 작년십일월중순에야 겨우예심을 맛치고공판에회부된그대로 다시 십개월동안을미결에서 신음한 세칭전남로동협의회(全南勞農協議會)사건에 관련된김호선(金好善)등 이십륙명에대한 공판의 긔간은 금번해사건의 담임부장 판사인 강등(江藤)씨의 전임으로 말미암아 막연히도연긔되여 바리엿다는데 피고들은물론 일반인사들까지도 해사건의 미결이너머나오래끌음을 비난한다고 한다 (洪燮傑)(九)은 주색에 빠저작년십이월 이십구일부터 시작하여 춘사(春紗)명주(明紬) 생사(生絲)동오백여원을 횡령 소비한것이 판명되여 평양서에체포되엿다한다

水原市內에 裸體怪盜出現
容疑者一名引致

【水原】 지난이십륙일오후십일시십분경 수원남문안에서 은방과 전당포영업을 경영하는엄주철(嚴柱喆)씨집에 발가버슨라체의 괴한이 침입하야정적한야반의 시가를 소란케하엿다는데 자세한내용을듯건대 전긔시각에 주인엄씨가 이층에서괴상한소리가 들님으로 혹시자긔부인이 터워서이층에가 잇는것이나아인가하야 올나가보니 어두운속에 잘보이지는안으나 이상한남자가 웅쿠리고 안젓는지라 소리를 질넛더니 무엇인지주인을향하야 겨누며 돈을내라위협

空前의大慘狀 三南水災活寫
鐵原에서 觀衆數千의大盛況

【鐵原】 금번북선순회의길을떠난본사삼남수해실황활동사진대는지난 이십륙일오후팔시 삼십분부터 본사철원지국 주최로 당지 심상소학교교정에서 무료공개한바 관중이무려 수천명에 달하야 대성황을 일우엇는데일반관중은 사진으로빗치는 공전의대참상을 목도하고 동포애에 끌는눈물을 자어내엿스며 련하야지난봄 본사주최의 전경성유치원원유회 사진을 상영하엿는데 일반은 어린천사들의 날뛰는양에 도취되엿든바 특히원아와 일반관중의 열광적만세를 부르는광경에 관중들도 열광이되여 부지중만세를 회창하는등 을음파우슴을 동시에 자아내게하고 동십시경에 폐막되엿다

產組雇員의 公金橫領發覺

【平壤】 순천군순천면관상리(順川郡順川面館上里)산업조합고원(產業組合雇員) 홍순성

鹽業會社人夫 同盟罷業斷行
賃金引上을要求하고

【仁川】 구월의국제청년데이를압두고 시내요로 각처를물샐일틈업시 철야탐사중에잇는 소관인천서에서는 돌연 이십팔일오전부터시외장의리(長意里)조선염업주식회사(朝鮮鹽業株式會社)인부오십여명이임금문제로 동맹파업을 단행하얏다는소식을접한 동서에서는 시귀가시귀임으로 아연실색하야 그주동자를 탐사코자 일대활약을하고잇다는바 그자세한것을 드르면 종전의 임금사십전 내지륙십전으로는 생활할수가업서서 인상하야달나는 탄원서를 회사측에제출하얏스나 회사측에서는 도리혀 인부를압암리에 따로모집주임을탐지한 전긔인부들은 분개하야 동맹파업을하고 복업하라고하는인부에게는폭력을가하는등 사태는 자못험악하야해결은묘연하다한다

牛車가顚覆 中年女子轢殺

【金山】 이십륙일오후네시경에평남 순천군은산시 중앙지에서우차가 전복되여 살인사건이잇섯다 내용은우차의 주인은순천면창리(順川面倉里) 사는길송목(吉松穆)으로 하야금 짐을실고오모(吳某)로 고인(雇人)은산장날에왓다가 오후 네시경에자산장으로 도라가던중 시가지북관에 이르러지형의 불순과 차부의 부주의로 차가전복되자 길가에안저잇든 순천군 선소면동림리(仙沼面東林里) 박정간(朴正幹)의처리씨(李氏)가치여서곳회준의원 원장유석호(

沐浴하다가 二少女一時溺死
安城郡一竹面에서

【竹山】 지난이십륙일오전십일시경에 경긔도안성군 일죽공립보통학교(一竹公立普通學校) (尹昌)아 김순이(金順伊)(八)두녀아는 압내물에서 목욕을하다가 일시에 빠저죽엇다한다

重大犯人被逮
警官密輸事件

【新義州】 목하예심중에잇는 경관 금괴밀수 사건에중요인물로서검거의 선풍이 일자교묘히 경계망을 돌코멀리 만주방면으로 피신하야 잇던안동현아세아양행(亞細亞洋行)주인조 산호(趙山浩)(三)와부내매지정서영(鄭錫英)(三)등량명은평북경찰부수배로지난이십삼일봉천경찰서원에게 체포되여 이십륙일 평북 경찰부에 압래되여보안과 상평(上平)부장에게엄중한취조를받고 잇는바 취조에따라서는 사실이발각될듯하다 하며불원간 예심종결이 될오날에 전긔와가리중요인물이 검거되엿슴을 보아동경관밀수사건 예심종결은 또다시연긔될는지 알수 업다한다

三千圓豫算으로 金蘭築港實現
九月上旬着工

【通川】 통천군통천면금난리(金蘭里)는동해안에잇서서적지안흔 항만이엿스나 축항을하지안허 폭주하는어선 출입에만흔장애가 잇슴을 항상유감으로일반이 늣기든바 드듸여지방비보조로 이천오백원을 엇고주민에게서 오백원을 부담하게되여제반설계를 다맛추엇슴으로 느저도오는 구월상순에는 착공하리라고한다

北朝鮮庭球戰
優勝은朴源夏組에

【城津】 본사성진지국주최와 진성정구협회후원의 제일회북조선개인 정구대회는 예정과가티지난칠월이십구일 오전십시사십분부터 성진철도사무소 코ー트에서 본사성진 김지국장의개회사와 주심 곽세헌(郭世憲)씨의 경기에대한 설명이끗난후 시합이 시작되여 이회전까지끗막고 우천관계로 부득이중지하엿다가 본월이십오일 오후세시삼십분부터 동코ー트에서 리희용(李熙用)씨의 주심으로제삼회전이 속개되여 오시경에폐회하엿다는데 총참조수는 이십오조로 최후의영관은、성진박원하락택현(朴源夏、梁宅玄組)조로 도라갓다고한다 그런데재이회전까지꾸준히 싸워오든 길주군이 금번부득이한 사정으로 전부기권하게 된것만은 유감으로생각하는바이라고한다

懸賞入選小說 마음의太陽 (八十一)
玄卿駿 作 金熊超 畫

폭풍우 【八】

극장에서 박의말에 두주먹을 불끈쥐고 일어선경호는 정신업시 밧그로 뛰여나왓다 그리하야 단숨에 집까지 뛰여와보니 맛친 승우의신발이 마루에 잇섯다

여서 잇다가 불의의 침입자에 놀나서 서로 떠려저안젓다

경호는 전신이 회끈 달어올나서 엇절줄을 몰우고 푸들푸들떨고만 잇섯다

승우는 창백하여진얼골을 폭

그리고 그엽헤는 보지못하던 녀자의 구두까지 가즈런히 노혀잇섯다

경호는 보지안어도 그것이 인숙의 구두인것을 직각하고 전후를 살필사이도 업시 방문안을 들어닥첫다

아니나달을까 방안에는 승우와 인숙이가 빨가케 홍분되

숙으렷다

인숙이는 처음에는 뜻하지아니한 경호의침입에 어색한표정을 하엿지만 얼마간 지난다음엔 다시금 태연한표정으로 경호를 처다보며 입가에는 자되찬 미소까지 띄우고 잇섯다

『최군!』

『최군! 자네두 사람인가?』

그러나 승우는 대답이 업섯다 경호는 딱 내뿜듯이 불르고 승우는 비로소 머리를 들고 경호를 처다보앗다

『김군 죽여주게!』

하고는 다시금 머리를 숙엿다

경호는 처음 극장을 뛰처나올때 갓하여선 당장에 보이기만하면 죽이고라도 실컷지만 정작 만나고보니 그럴수도업섯다

더구나 머리를 푹숙이고 처벌까지 기다리는것을 보니경호의마음에는 일종의 가련한 마음까지 떠올낫다

그와동시에 인숙이게 대한증오감은 몃배를 더하엿다 독사가튼년!

찌저버려도 시언치 안은년!

하고 생각하엿지만 직접 자긔로서 말할권리는 조곰도업섯다

그리고 다시 생각 하여보니 또한 인숙의잘못도 아니엿다 역시 승우의 잘못이엿다

『최군! 나한테 용서를 빌기보담 모든여러동무들께 처벌을 밧는것이 엇떤가!』

『그것은 잘알고잇네』

하고 처다보는 승우의눈에는 참회의 눈물이 고여 잇섯다

인숙이는 겻헤서 무어라고말할듯 하다가도 경호의긔세에 그만 눌니워서 그만두곤 하엿다

그리다가 승우의 무긔력한태도에 그만 겁이 밧작 올나서 신발도 벗지안코서서 자긔를 노려보는 경호를 처다보앗다

『경호씨 넘우나 무례하지안을까요? 집은 당신의집이지만요 저는 이집에 손님이 아닙니까? 손님압해서 신발도 벗지안코 인사도업시 빼티고잇는것은 아마 신사양반 치고는 못할일일껄요?』

하고 톡 쏘앗다

방자스러운년!

하고 경호는 속으로 결이낫지만 그냥 꾹참고 아모대답도업시 노려보고 이섯다

『제말이 말갓지안어서 대답이 업서요?』

그러나 경호는 여전히 빼티고선채 냉소까지 하고이섯다

인숙의겨분은 극도에 달하엿다

『경호씨! 당신은 넘우나 저를 멸시헙니다』

『그럿턴가요? 대단히 미안헙니다』

『뭐요?』

『웃재 귀ㅅ병이 나서습닛까? 못들으섯다면 을마던지 다시 말해들이지요』

『……………』

인숙이는 독이 잔뜩 올나서 말도 못하고 입술만 깨물고 이섯다

새빨간 입술은 금시에 피가 터저나올것갓하엿다

경호는 터밀한내야 소용업는 것을 깨닷고 승우를 향하야

『최군! 어서 나와갓치 가세』

하며 승우를 재촉하엿다 그러나 승우는 일어나려는긔색이 보이지안엇다

『최군! 극장에 가지안으려는가?』

『김군! 요……용서해주게』

『뭐? 용서?』

경호는 입을 버린채 담을지 못하고 승우의얼골을 내려다 보앗다

다음순간!

그의전신은 확근하엿다

『에 개자식가트니』

그러자 경호의 주먹은 번개치듯 번뜩이엿다

『악』소리와함께 승우는 코피를 흘니며 그자리에 꺽구러지고 말엇다

美와魅力의近代化粧料

タンゴドーラン
탕 고 도 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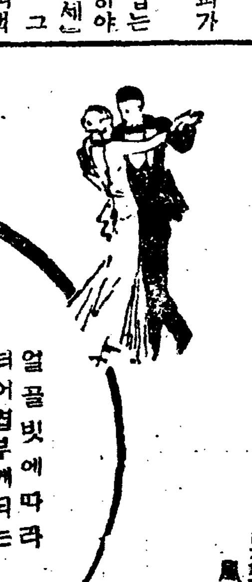
新秋 街頭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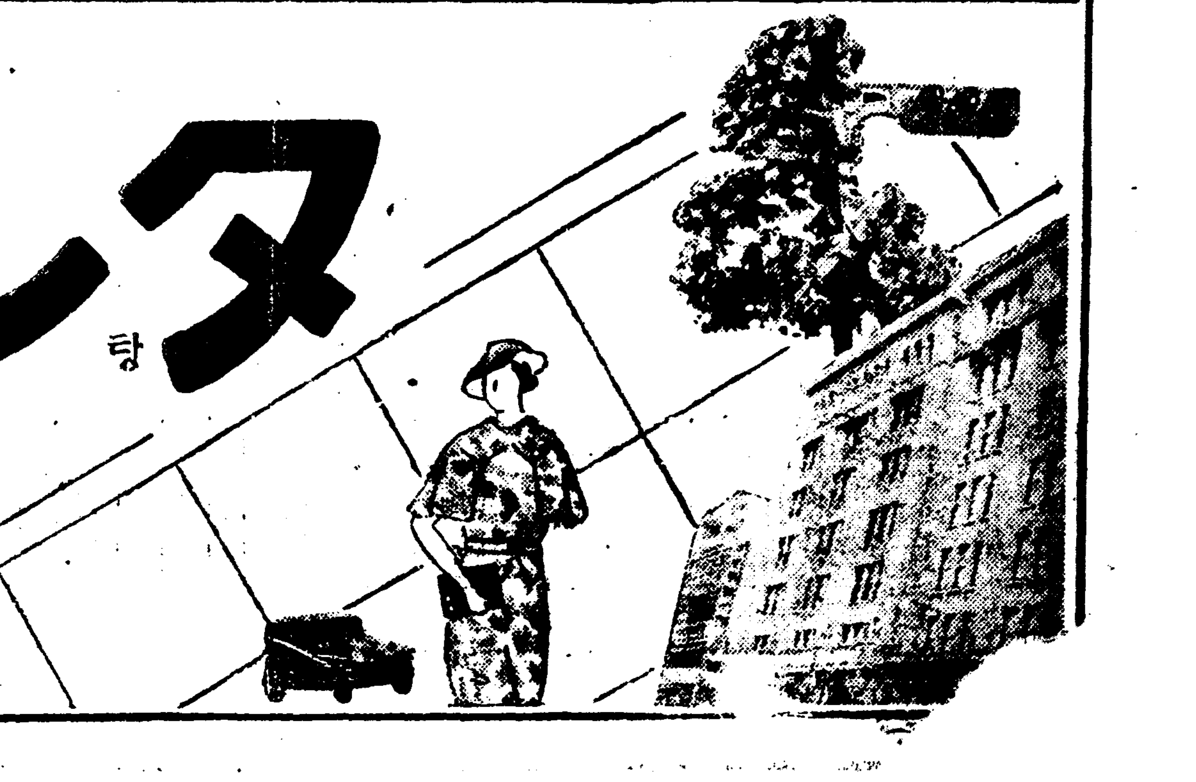
사랑이輕快히往來한 가운데 近代女性의 明朗코潑剌한 魅力의氾濫!

×

누구나다 タンゴドーラン으로 近代的化粧美의 流行에、얼마나 銳敏한感覺을가지고 잇는그것이여—

タンゴドーラン는 크림도처분세수도無用한순푸ー드化粧料로빗나는美貌가마음대로





얼골빗에따라 더어엽부게되는 タンゴドーラン七色

一般婦人에는……肌色
얼골하얀분에는……白色
얼골파리한분에는……淡紅色
얼골히지못한분에는……早肫色
얼골창백한분에는……爽健色
얼골붉은분에는……新鮮色
尖端的美容에는……明朗色
正價(各色一個)・五○

固形タンゴドーラン
純良無鉛、芳香優雅、粉白粉과 갓치無用한가루가飛散치안코과 쉽게고흔化粧이됨니다。
正價(各色一個)・六○

著名百貨店・藥局・洋品店・化粧品店에잇습

東京・大阪 鳳鳥メール本舖

最近日本經濟 飛躍과 그原因 (四)

高橋龜吉氏講演要旨

日本品이 외廉한가?그럼 理가 업다고 不當不正한 競爭所致라하야다가 그眞相을 알고나서는「人道問題」를 꺼내어가지고 排斥의 理由를 삼고잇다. 即 職工勞働者의 生活程度를 低下식혀가지고 生産費를 低下식혀 低廉한 商品을 만들어내어 歐洲品과 競爭함은 脅迫할 일이라는 것이 그 排斥의 骨子로 歐洲도 日本品에 對抗키 爲하야서는 만흔 失業者와 賃銀引下를 하여야겟는데 이는 社會問題上 絶對로 不許할 일이라는 것이다 이 人道問題를 말하는 歐洲人은 白人種이 優秀한 地位를 維持키 爲한 말이다. 白人種이 優勢일 때는 自由貿易을 올타하야 이것이 經濟原則이라고 世界를 橫行하고 배를 불리엇스나 지금은 地位가 顚倒되어 日本品에 到底히 對抗할수업스니까『엇던』制限이니 輸入割當制이니 하야 내어가지고 日本品을 排斥하며 日本은 産業平和의 敵이라고 떠들고잇는 現象이다。(人道問題에 對한 高橋氏의 反駁은 略함)

×

現時의 各國의 産業根本政策은 低價의 多量生産보다는 될수잇는대로 만흔國民에게 만흔일을 주어 生活을 向上식히자는 것에 그中心點을 두고잇다。▲米國「루스벨트」大統領은 勞働時間을 短縮하고 失業者를 적게하기에 努力하고 ▲獨逸의「히틀러」總統者는 今後로는 勞働者를 節約하는 機械使用을 不許하며 ▲日本農林省은 統制第一主義로 進하고잇다 等 現代世界를 乘하야 物資消耗時代입으로 世界貿易上에 큰 變化가 이러낫다。

×

結論을 말하면 日本經濟의 進步가 根本的이지만 前途가 樂觀이냐하면 반드시 그러치는 안타。지금까지는 發達하얏지만 今後가 問題이다。元來日本은 後進國이엇던 때문에 先進國이 걸어간 길을 그대로 걸어가기가 쉬웟지만 明日의 日本은 進路가 업다。왜그러냐하면 日本은 從來 先進國과가튼 進路에 이던것이 先進國과가튼 地位에 到達한 때문에 압흐로 새길 新開拓는 제로 가리키어줄 도업고 日本自身이 研究할 수밧게 업다。지금까지의 日本은 政府等모든것이 다 그대로 걸어갓슬뿐으로 創造의 努力이 업섯스나 이것이 重要한 點이다。從來의 政治는 一變하고 開拓하야 나가야만 明日의 日本이 잇슬것이다。

―(終)―

朝鮮稻作今後打診 急遽寒氣로 一層悲觀

漸次稻生育上危險期에 드러감을 따라서

◇粟作況도 極不良狀態

▲山本農林局技師 談 八月二十五日現在의 朝鮮水稻作況은 平年作에 比하야 稍不良인데 今年水害가 相當하엿스나 그뒤 氣溫만 昂騰하엿드면 豐作이되엇슬는지 모르든다 그랫나 初見記錄의 低溫繼續과 日照不足이 가장큰原因으로 平年作以下의 豫想을갓게된것이다

◇

그런데 昨今 急遽히 生寒되야 一層低溫으로 만약 그低溫이 繼續되면 水稻生育上 甚大한 影響이 밋칠念慮가 잇다 即今年作付가 遲延되만큼 稻生育期間이 더時日이 걸니게될모양이며 딸아서 稻作의 危險期는 압으로展開가 될터인데 요새와가티 急降下의 低溫이 繼續하는것은 若干의 惡材料가아니다 그럼으로 八月二十五日現在의作況이 稍不良이나 低溫繼續과 日照不足이 何等의 好轉이 업스면 一層의 減收를 難免할것으로 생각한다

◇

粟作도 매우不良한바 目下의 狀態로 보드래도 三割乃至五割減收의 豫想을갓게한다 粟作不良은 農民을 直接威脅하는 作用을 하는만큼 이에對하야 憂慮하는터이다

水稻作稍不良

今月二十五日現在의報告로 平年作收穫比較

【廿九日總督府農林局發表】今年의 水稻作況은 春期氣溫이 놉고 苗의 生育이 良好로 또 六月上旬 全朝鮮的으로 潤雨가 잇고 移秧도 當初는 比較的順調로 進捗하엿스나 六月下旬부터 七月中旬에 南朝鮮地方에 降雨가 업고 移秧이 停頓되야 旣植畓도 旱害가 잇섯다 그런대 七月下旬으로부터 豪雨가 잇서 旱魃은 곳 稀有의 水害로 化하며 畓의 浸水流失埋沒로 因한 被害가 激甚하고 一面 西北朝鮮地方은 低溫過濕으로 日照가 적고 全朝鮮的으로 作況이 매우 憂慮되는 狀態이다 그뒤 南朝鮮에 颱風이 襲來하야 西北朝鮮도 繼續의 曇天으로 氣溫低下하야 分蘖伸長이 모두 阻害되고 局部的으로 稻熱病이 發生하고 八月二十五日現在의 作況은 全朝鮮的으로 이것을 보면 稍不良의 狀況인대 各道別 狀況은 알에와갓다

道名	作柄概況
京畿道	稍良好
忠淸北道	普通
忠淸南道	稍不良
全羅北道	普通
全羅南道	普通
慶尙北道	不良
慶尙南道	不良
黃海道	稍不良
平安南道	稍不良
平安北道	稍不良
江原道	普通
咸鏡南道	稍不良
咸鏡北道	稍不良

【備考】(一) 作況의 區分은 左標準에 依함

▲良=普通作況에 比하야 增收一割을 超越할 豫想의 境遇

▲稍良=普通作況에 比하야 增收三分以上 一割以內豫想의 境遇

▲普通=普通作況의 三分以內增減豫想의 境遇

▲稍不良=普通作況에 比하야 減收三分以上 一割以內豫想의 境遇

▲不良=普通作況에 比하야 減收一割을 超越할 豫想의 境遇

(二) 作況이라고 함은 作付反別의 增減에 不關하고 다만作況의 良否를 말하고 普通作況이라고함은 前五個年間의 中庸作柄을 指稱함

千五百卅三萬石

平年作以下一割減難免形勢

比昨年三四百萬石減

朝鮮米實收의 最近五個年間 平年作은 一千六百四十萬石인데 別項의 今年水稻作況은 平年作에 比하야 稍不良即三分以上 一割以內의 減收라고 함으로 그것을 數字的으로 보면 千五百九十萬八千石 乃至 一千四百七十六萬石에 該當한바 道別의 平年作을 보면 다음과갓다 (以下單位萬石)

道	平年作	今年作況
京畿	一九〇	平年作
忠北	六七	平年作
忠南	一四〇	一割減
全北	一八〇	三分減
全南	二三〇	三分減
慶北	二〇〇	二割減
慶南	一八〇	二割減
黃海	一二五	六分五厘減
平南	八〇	一割減
平北	一〇〇	六分五厘減
江原	九〇	三分減
咸南	五四	一割減
咸北	一四	一割減
計	一六四〇	

다시道別로平年作에比한數字를보면 京畿道는平年作의百九十萬石 忠北도平年作의六十七萬石 忠南은一割減임으로百二十六萬石 全北은三分減임으로百七十四萬六千石, 全南三分減二百二十三萬四千石 慶北은二割減임으로 百六十萬石 慶南도 二割減임으로 百四十四萬石 黃海道는 六分五厘減임으로百十七萬石 平南은 一割減임으로七十二萬石 平北은六分五厘減임으로 九十三萬五千石 江原道는三分減임으로八十七萬三千石 咸南은一割減임으로四十八萬六千石 咸北도一割減임으로 十二萬六千石이다

以上의各道減收를 平均하면 六分五厘減收로 即實收는 一千五百三十餘萬石이다 그러나 一割減으로하면 一千四百七十六萬石이되는바 어떠튼지 八月二十五日現在의作況으로는 千四百萬石程度로 보면 큰틀님이업슬것이다。그러고 이것에陸稻二十五萬石을加算하여가지고 昨年實收一千八百十九萬石에比하면 三四百萬石의大減收數字를보게되얏다

秋分前作況

初試驗的으로發表

米穀政策의 基本資料가 될 稻作의收穫豫想에對하야 朝鮮에서는第一回를 秋分現在第二回를十一月一日現在로調査하엿슬뿐이든바 이번에 日本內地와가티 農林局에서도 처음되는試驗으로지난 二十五日現在全朝鮮作況에對한調査를 한것이다 그調査의方法은過去五個年間의平均數量 一千六百六十萬石을平年作으로하고 이에對하야 三分以內增減은普通作、普通作況에比하야增收一割을超越할境遇는良 普通作況에比하야增收三分以上 一割以內의境遇는稍良 普通作況에比하야 減收三分以上 一割以內의境遇는稍不良 普通作況에比하야 減收一割을超越할境遇는不良의 五種에分하야調査한것이다 그러나 作況豫想의 調査는 總督府報告令에업슴으로 明年度부터는報告令을 改正하야 作況豫想을 追加하야正式으로 調査할方針이라고한다

米國新財政策

平價切下益金保管

▲……모겐소財務長官演說

【華盛頓二十八日發聯合】모-겐소-財務長官은 二十八日夜全國에對하야 放送演說을하야 新政策下의 米國政府의財政狀態를詳述하고 平價切下에依한 差益金을 將來一般會計에繰入할意圖가잇는것을 闡明하얏다 勿論差益金繰入은 窮極의方策에不過하나 드듸어實現되면 必然的으로 크레띠트●인플레이슌을誘致할것이라하야 非常히注目을끌고잇다 모-겐소-長官의演說要旨는如左하다

弗貨의平價切下에잇서 金利潤은現在로서는 嚴重히財務省에서保管하야 그大半은弗貨의安定資金으로 따로預金하고잇다 財務省으로서는當分現狀維持로 나갈方針이나 平價切下에依한[illegible]는때이든지 國庫收入의本流에還流할것임으로 國家債務의償還에所用될것이다 루-즈벨트 大統領의 新政策으로米國政府는 六十億의 新公債를負擔하게되엇는바 다시六十億의貸方計算을計上치안으면안된다

一、一九三三年三月四日以來의 國家現金收入의 收入增加十六億弗

一、弗價切下에依한金利潤은二十八億弗

一、純政府機關乃至政府融資機關의純收入增加十億九千五百萬弗

以上모-겐소-長官의演說에徵하면 新政策中의純支出은 五億五百萬弗이다

中國銀의 輸出禁止

一種風說인듯

【電通東京電話】最近中國에서 銀의國外流出을 防止하기爲하야 銀輸出課稅或은銀輸出禁止를할것이라는 一說이傳하는바 某所에達한確實한側으로부터의 情報에依하면 右는單只風說에지나지못하고 國民政府는何等그러한意思가업다고한다 그리고大藏省에서도 아마上海의外銀側이 米國의銀國有令에脅威되어投機를하얏슴에依한것으로 近近常態에復歸할것이라하야同樣의觀測을하고잇다

米日爲替少高

【京城二十八日發聯合】二十八日의米日爲替는 賣三十弗十二仙으로五仙高 買三十弗十五仙으로五仙高

▲東京爲替(二十九日)

	賣	買
對米	三十弗十六分一	三十弗十六分三
對英	一志二片	一志二片三十二分九

▲大阪爲替(二十九日)

	賣	買
對米	三十弗十六分一	三十弗十六分三
對英	一志二片四分一	一志二片十六分五

滿洲國本稅法

九月一日實施

【新京二十八日發聯合】滿洲[illegible]業者本稅의 輕減과 成案[illegible]立案中이든바 八日[illegible]政府의審議[illegible]

米倉增築

損失補償

國家에서負擔

米倉會社에서는 二百五十萬圓을投하야 새로百萬石을 收容할수잇는 倉庫二萬五千坪의 建設에 着手하야 九月中에는 大略完成될터인데 右倉庫建設은 營利打算을 全然度外視하고 米穀政策의 一端으로 實施된것으로 이로하야 當然損失이 생길때에對하야서는 國家의補償이 約束되어잇는것이 判明되엇다

米倉兩支店新設

米倉會社에서는 江景 麗水兩地에 支店倉庫를 建設하기로 決定하고 目下總督府當局에 認可를申請中인데 먼저 右兩支店所在地에 알에와가티 倉庫를建設케되야 二十九日부터 着工하엿다

▲江景=敷地用地二、〇〇〇坪借入二、〇〇〇坪買收 三南殖産 三、五〇〇坪買收 于先二、八〇〇坪六棟을 長門組가着工

▲麗水 南朝鮮鐵用地二、〇〇〇坪借入 六棟二、〇八〇坪을 多田組가 着工

三製鐵會社合倂

【東京電話】(그리브랜드 廿七日發) 코리간막킨네이스틸、우리버부리스틸、 드라스코스틸의 三製鐵會社는 今般合倂하야新會社를 設定하게되엇다는旨를發表하얏다 新會社는總資産約三億二千三百萬弗로 合倂後의年産力은 六百萬噸에 達할터이다

金貨强制買上 規程을設置

大藏省에서研究中

【電通東京電話】大藏省에서는 金地金의産額保有狀況等에鑑하야 民間으로부터 必要에應하야 報告시길規定을法文에 明示하려고 目下爲替管理法의 改正案을考究하고 잇는바今回다시 이와竝行하야 金貨의强制買上處分에 關한規定을同法中에 插入하려고研究를進行하기로되엇다 右는現在의爲替管理法 第四條의强制買上에關한 規程이單只金地金에限定하야金貨에 對하야서의 强制命令을 明記치안키때문에 새로附加하려는것인데 現在金貨保有高는 日本銀行에二億三千萬圓그他民間에 數千萬圓을 算할터로이 强制買上을하는境遇그表記價格 即額面의兌換券을 交付키로할는지 或은金貨를金地金의時價에 則하야換算할런지에對해서는아직 意見一致를 보지못하얏다

今日財界 (廿九日)

米 (單位錢)

	今日止	先週日
仁川期米先限	[illegible]	九低
大阪期米先限	[illegible]	[illegible]高
⊖三等米一石	二四〇〇	不變
京城精白米一石	[illegible]	不變
正租(仁川)一斤價 (改良)	[illegible]	[illegible]
(在來)	[illegible]	[illegible]

市中金銀價

	一匁賣	一匁買
金	十三圓六〇錢	十三圓〇〇錢
銀	十九錢五厘	十六錢〇厘

株 (單位錢)

	今日止	先週日
朝新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日産	[illegible]	[illegible]

商品 (先限單位錢)

	今日止	先週日
大阪綿絲	[illegible]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illegible]
고무現貨(八錢五厘) 先限	[illegible]	[illegible]

▲新木稅率은 價格百分八을 거처서 公布하고 九月一日부터 實施키로되엿다 但木拌(新材)은 百分四로되얏다

商況 (廿九日)

株式 當落好感 昂進

前場保合 今前場도新材料에接치못하야 東新은百四十七圓臺에 强保이다가七圓十錢大引、大新九十一圓六十錢에不勢이다가二圓丁大引 日産百二十九圓四十錢에弱步로九圓七十錢大引 朝新二十九圓丁日發六十八圓十錢 拓新十圓三十錢、帝人百七十六圓丁 各一本어잇섯다

後場昂進 後場은大阪長期休會、短期一時開立會인데當地는東新이 百四十七圓三十錢寄一本뿐으로 當限平穩納會別無好感이엇스나 强氣買進으로 即東新은 百四十八圓二十錢에一圓十錢高、大新九十二圓八十錢에八十錢高、日産百三十圓六十錢에 一圓二十錢高、朝取六十三圓丁 朝新二十八圓九十錢에各大引되고 日發六十八圓四十錢、拓新十圓三十錢

當限納會平穩 亦是別無好感

高價取組인當限은 그間大部分乘替하야 逐次解商이進捗되고 今二十九日前場限 大阪長期當限落이엇는데 前場中은當限落如何를몰나 或强或弱의區區保合이더니 平穩納會되엇슴을보고도後場寄付는依然不變으로好感이別無하얏다。無材料이라急激한進展이업는것도 當然한일로來月에對한期待는 倍加한터이엇다

保合彷徨이나 一轉好化順序

九月動調期待

全般的으로 進出力이업서保合圈內에서彷徨할뿐인데 이것은要컨대 指導的 地位에잇는東新에 熱이생기지안코 延하야全般的으로人氣를 刺戟치못하는것이商勢保合의根本原因이라겟다 日産으로말할지라도 會社側이四、五十萬株를擁하고極力으로買支하고잇는때문에 一般은敬而遠之하고잇는狀態이다。그러나 九月新秋가 目捷間에 追到하야지금이 閑散의極이라면 動調가期待된다。이미오랜동안에亘하야 가지惡材料不安材料를算하고 嫌氣에嫌氣를거듭한 市勢인만큼機會만잇스면 一轉好化의順序를觀測할수잇서 그무엇이動機가될지가 興味視되는터이니 惡目買에 始終如一하고 徐徐히機會到來를기대림이 賢明할것갓다。

標本은무엇? 日産?東新?

好機到來를 기대리고잇는터인데 東京의弱氣[illegible]과가 리東新賣買를續行하야 取引所制度의諸問題、過度投機抑制等의 政策을豫想코 이에根據를두고잇는듯하며 日産은會社側이 四五十萬株를擁하고잇서 百三十圓維持에 苦心中인터이나人氣를喚起하야 增資、成功코저하는이會社側策謀를 默認하야 便乘하는側이잇다한다。如斯히東新日産이모다 株界指導株가되지 못한實情이나 그래도大勢觀을是認코나서 그先驅이될것을 어듸에求할가하면 亦是끼끗이整理를完了한 東新일듯한바 果如何?

株界六感

×

當限平穩納會도 無感應으로 市勢는 依然保合圈未脫

×

이래저래 이달은 이모양대로넘어갈지도모르나 或은月末掉尾一振이잇슬듯도하다

×

九月以降은 政府諸支拂增加 新公債增發等으로『인푸레』에 拍車를加하게되고 金融도一時硬化가 緩和될모양

×

閑散保合中에도 動調는逐次培養되어가는터이니 牛步的으로라도 好調에向할것을觀測

×

增稅念慮까지 解消되엇스니 大勢惡目買에 異意를唱키는 無理일듯

實物前場取引

賣買高八百枚

▲福井人絹 [illegible] ▲東京人絹 [illegible] ▲日本麥酒 [illegible] ▲新興人絹 [illegible] ▲東亞殖産 [illegible] ▲國光레온 [illegible] ▲朝日攪造 [illegible] ▲京電 [illegible] ▲北鮮鐵道 [illegible] ▲大島製鋼 [illegible] ▲朝銀 [illegible] ▲合同油脂 [illegible] ▲旭紡績 [illegible] ▲證券金融 [illegible] ▲日滿아루 [illegible] ▲日滿曹達 [illegible] ▲東洋레욘 [illegible] ▲日滿세멘트 [illegible] ▲人造羊毛 [illegible] ▲東滿펄프 [illegible] ▲滿洲工廠 [illegible] ▲第一에타파이 [illegible] ▲에타바이新 [illegible] ▲機械工作新 [illegible] ▲三菱重工 [illegible] ▲振興鑛業 [illegible] ▲帝國製鋼 [illegible] ▲東洋레욘新 [illegible]

期米 高價不續 鈍狀

前場軟勢 昨後場阪地二十六圓七十一錢止와共히二十三圓九十四錢에 寄始인當市場은今朝에入하야 阪地初付二十六圓八十三錢인十二丁 突高를 據하고二十三圓九十八錢인四丁高로場을始한後 阪地三四節共히七十九錢으로幾分硬味를添하엿스나 二三丁高에 止할뿐으로結局軟弱을脫치못함을딸아⊘의連續賣物이 現出하야 九十八錢을最高로 漸落되고阪止八十錢과共히八十錢에止場하다

▲**後場下澁** 後場은二十三圓七十七錢에三丁低로始場後二節七十六錢으로 三節八十八錢에突高이고 別個가리止場하다

東京國債市況

【東京電話】四分利及四分半債의 新規不振이오 뒤는진投物로三十錢餘의續落을 繼續하야 五分利物은債現物係로無商이엇다 大體保合의商狀이엇다 佛貨는十錢低 米貨債는三圓高로反撥하얏다

甲五分利	一〇二、五五
一回四分利	九八、三五
二回四分利	九八、三〇
佛貨四分利	一八四、一〇

當限去益惡化 拂下米壓迫?

一時는端境期의糧米不足說이擡頭하야 先限보다五六十丁의上鞘를示하든當限이 昨今에入하야는 朝鮮米의兩次八十萬石拂下가 米界에非常한壓迫을加하야 品薄의緩和는勿論이오 當限渡米도容易히蒐集할수잇게되엿슴에따라 도리혀四五十丁이下鞘를示케되엿다 實로明前場으로써 終幕을告하는此當限의決戰이如何할지 자못興味視되는바인데 目前의形勢로보면 아즉도又一段低落을示할것도갓다 그러나 凶作을압헤두고 蠶安心을할수도업슬것이며 反面의買方은 昨今瓦落에 失色의觀이업지아니하나 受米後의處分難의問題는 입슬것임으로 市勢는此間의低落으로써 一段落을지지안을가한다

拂下도可畏나 凶作도亦可慮

客月中부터政府는 長貯正租의拂下를 繼續하야 季節調節米의拂下를 繼續하야 阪地는百四十餘丁當地는 約八十丁의反落을告하엿나 아즉도 政府所有米는米統法에依하야買上한 一千二百萬石을除한外에도 二百二十萬石이 남아잇스며 朝鮮米도九十餘萬石이나남아잇슴으로 政府의今後拂下도可畏이거니와 凶作으로因한 將來米價도考慮치 안을수업슬것임으로 無謀히對方針을 定할수도업다 何如間 今當限이 納會된後에는 凶作의 市勢가展開될지도 亦未知임으로 買方은 此際에서 焦慌하는것보다참아리 持久戰을 繼續하는것이 良策이아닐가한다

米豆餘話

◇政府는兩次에亘하야百七十萬石의拂下를行하엿다 그래서米界는非常한 壓迫을受하야一時는米不足을 豪語하든端境期는때아닌米山

◇第一次拂下米도채處分되기前에 第二次拂下를 하기때문에米界는 可謂平地風波

◇아즉도拂下할것이 相當히남아잇스니政府의 態度가如何할지몰으는만큼 安心賣는 絶對不許

◇强氣側은未來의凶作을唯一한 看板을삼고弱氣側은現實의拂下를唯一한條件으로主張하고 잇다 此兩材의今後比例가果如何?

堂島前場小康

【大阪電話】連日低落을演한뒤이라 一般으로依頓關係上 突込치안코市況이겨우小康保合이엇다 ▲賣方東京側朝鮮側中東側正米側中國側 ▲買方場違側(乘替)西山側地場、株式側

▲中限(賣)[illegible] ▲先限(賣)[illegible]

各地正米

京城保合 定期의下支를듯고 賣人은 一般으로依頓함에 빼하야 廉賣堅强하야 前價와 同樣明이오 取引이이엇다 ⊖三等二四、〇〇 四等二三、八五 一等白米一八、〇〇

仁川下支 連日續落을演한 뒤이라 當用方面의買氣를誘導하야 期米安定과相俟하야 下支入氣로⊖三等二四、〇〇 四等二三、八五 一等白米一〇、〇〇

群山暴落 出廻七輛、拂下를目前에두고 日本內地移出側이傍觀함으로 所持側도賣氣가생기어 多少低價이드래도 賣行이不良하야 ⊖三等二四、五〇 四等二四、三五 一等白米一〇、四〇

木浦反撥 出廻八輛、定期의反戾模樣을보고 當用의買組가各方面으로부터入하야 過落된反動을加味하야 갈은五十錢反撥을告한 ⊖三等二四、九〇 四等二四、七〇 一等白米一〇、二〇

南浦鈍重 定期低로 商談이不捗하고 活氣薄의 市況으로 氣配鈍重하야 十錢低인⊖二四、九〇 四等二四、七〇 一等白米一〇、一五

釜山强含 出廻三千五百叺 所持側의處分賣도 一段落을告한것과 蓬萊米의入荷薄도잇서 當用의買氣漸次恢復하야 氣配도十錢가량 强含하고 賣行이 조곰식잇서 合計千百八十叺의賣買가잇섯다 ⊖三等二三、九〇 四等二三、六〇 一等白米一〇、二〇

大邱安定 定期의小康을듯고 一般이突込는 警戒하야産地出廻薄과相俟하야 安定人氣이오 前價와保合인 ⊖三等二三、一〇 四等二三、一〇 一等白米九、九〇

各地期米當限受渡

	受渡石數	受渡價格
大邱	三九〇〇石	二三、〇〇
釜山	二九〇〇	二三、五〇
群山	三八〇〇	二四、五〇
木浦	一三〇〇	二四、〇〇

朝取期米取組高

▲當限(賣)[illegible] ▲中限(賣)[illegible]

仁川期米 劉康益夏商店 仁川·海岸町

京城株式 劉金益證券株式會社 京城·黃金町

金融 (廿九日)

海外經濟 [illegible]

京城手形交換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金實入價 [illegible]

米穀 (廿九日)

京城正米 [illegible]

仁川正米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格 [illegible]

京城雜穀 [illegible]

商品 (廿九日)

京城綿布 [illegible]

京城絲布市勢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滿洲商品 [illegible]

대구고무靴 [illegible]

鰮搾粕冲價 [illegible]

大連特産時勢 [illegible]

株式 (廿九日)

朝取短期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東京短期東新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實定代引日步 [illegible]

朝取短期賣買高 [illegible]

期米 (廿九日)

朝取期米 [illegible]

朝取賣買高 [illegible]

朝鮮內各地期米 [illegible]

朝取組高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

商品 (廿九日)

大阪綿糸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各地人絹 [illegible]

橫濱生糸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海外砂糖 [illegible]